

‘기후 역습’에 무방비...현실이 된 ‘재난영화’

기후변화 속도 상상 이상... ‘탄소배출 0’ 법안 준비 못해
정부 ‘감축 목표’ 국제기준 절반 그쳐... ‘감축 속도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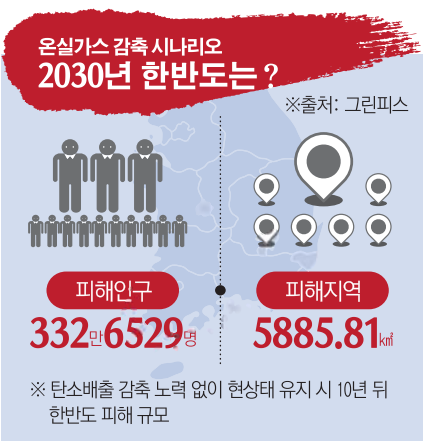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메가톤급 물폭탄이 미국 메릴랜드주 엘리컷시티라는 작은 마을을 뒤덮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10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진단했지만 바로 2년 뒤 다시 물폭탄이 쏟아져 이곳을 침수시켰다. 같은 해 10월에는 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하와이의 이스트아일랜드를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렸다. 전 세계 곳곳에는 몇 년 전부터 이 같은 ‘기후 재앙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올여름 한국 역시 무방비 상태에서 유례없는 물폭탄을 맞았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이재민들은 저마다 “50~60년 만에 이런 기습 폭우는 처음”이라며 기막혀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폭탄 주기는 급격하게 짧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영화 속에서만 등장했던 끔찍한 재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지금의 홍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환경 캠페인팀장은 “한국의 경우 해수면이 60cm 정도 상승하면 100년 주기의 해안지역 폭풍이 매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정치적 차원의 움직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넷제로(net-zero·배출량 0)’로 해야 극단적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넷제로 실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절반(50%)으로 줄이고, 매년 7.6%씩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한 유럽 국가 등 선진국들은 이미 ‘2050년 0%’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우리 정부도 올해 말까지 IPCC에 ‘2050 넷제로, 2030 50% 감축의 무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기존 탄소 감축 목표는 국제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여전히 석탄, 가스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나마 21대 국회 들어 ‘탄소 감축’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해당 산업이 위축된다며 경제 논리를 내세우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이유로 20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환경단체 출신이자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기본적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noon@



코스피 연중 최고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한 달여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67포인트(0.65%) 오른 2443.5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5.29포인트(0.59%) 상승한 899.46으로 마감하며 2018년 4월 17일(901.22) 이후 최고점에 올라섰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관련기사 17면

초중고 21일 등교 재개...수능 예정대로 12월 3일

초·중교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부분 등교

전국의 학생들이 이달 21일부터 학교에 간다. 다음 달 1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부분 등교가 이뤄진다.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유엔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교(고3 제외)는 2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기타 비수도권의 학교는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내(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째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고,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도 9월 들어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며 “절대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전면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등교 재개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12일 이후 등교 확대 여부는 감염병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은 원격수업 중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습은 실시간 조례와 종례를 운영

한다. 또 교사는 실시간 화상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결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당일 원격 수업 내용 개요 등을 주제로 소통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교실 내부에 인터넷(Wi-fi) 환경을 구축해 약 20만 대의 노후 기자재 교체 및 지원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올해 수능은 변동 없이 12월 3일에 치러진다. 유 부총리는 “수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게 최대 과제”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수능을 예정대로 치를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해 전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20대 고가 부동산 취득 철저 검증”

국세청, 올 기업 세무조사는 축소

국세청은 올해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 이동을 철저히 검증,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 감면 협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대지<사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 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 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



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 및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호화·사치생활 혐의자에 대한 현장

수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실질적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과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코로나 백신’ 국민 60% 접종분량 우선 확보

정부, 3000만 명분 先구매 추진
내달 예방접종 시행계획 수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개발한 백신 3000만 명분 도입을 추진한다. 필요분의 6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도입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 명분을 확보한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

공급)이 주도하는 다국가 연합체다. 내년 말까지 세계 인구 20%에 백신 균등 공급이 목표다. 단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를 위해선 도즈당 3.5달러의 선입금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GAVI에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를 위한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2000만 명분(4000만 도즈)은 글로벌 기업과 협상해 선구매 방식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와 △가격 △플랫폼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선구매 백신을 결정할 계획이다.

임태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00만 명분 확보와 관련해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별 기업들과) 국내 백신 생산 CMO(위탁생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통해서 2000만 명분 이상

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각 글로벌 제약사들도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했다.

임 국장은 또 “내부적으로 예방접종 전략을 논의 중”이라며 “(백신이)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다음 달까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사흘 연속 100명을 밑돌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날보다 106명 증가한 2만 239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은 91명, 해외 유입이 15명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서민도 저리대출 받아야” vs “혈세로 부실폭탄 막는 꿀”

‘기본대출권 도입’ 감론을박

이재명 경기도시자가 ‘기본대출권’을 주장하면서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이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본대출권이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도 1~2%의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기저금리대출 권리다. 이때 발생하는 미회수 위험, 즉 신용 리스크는 정부가 인수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금융시스템과 복지시스템이 결합한 복지적 대출제도의 하나로 해석된다. 기본대출권에 대해 각 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본대출권, 금융시장 원리 훼손=이 지사는 13일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잇는 개념인 기본대출권을 처음 자신의 페이스북 북에 소개했다.

이 지사는 “서민대출 이용자 다수는 힘들어도 잘 갚는다. 부득이 못 갚는 소수의 신용위험을 동일집단에 고금리로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지출에 갈음해 정부가 (위험을) 인수해 모두에게 장기저금리대출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권 개념을 소개한 이유에 대해 금융시장의 빈부 격차 구조인 ‘부익부 빈익빈’을 꼽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행은 연 0.5%로 시중은행에 화폐를 공급하고,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이재명 경기도시자

“미회수 위험은 정부가 인수하고 소득 관계없이 1~2% 혜택 지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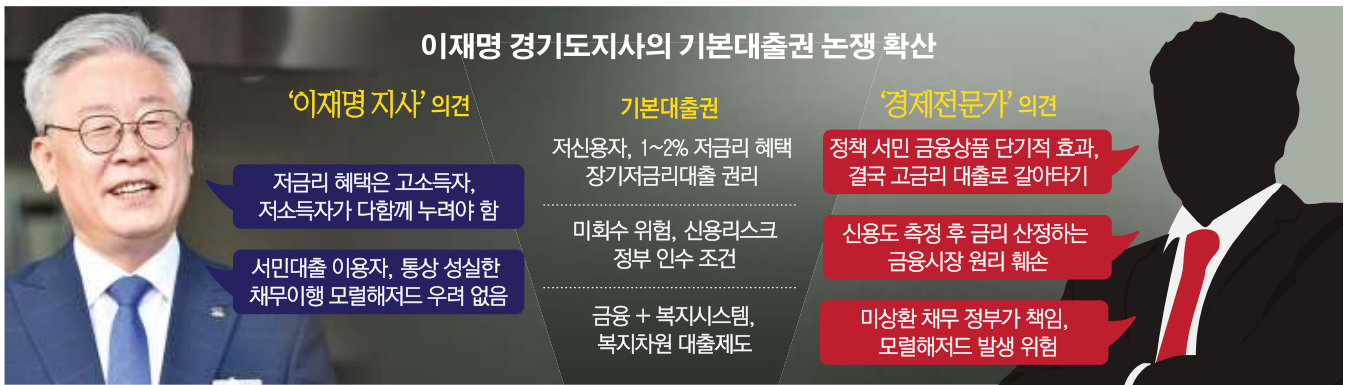
금융권·경제전문가

“소득에 따른 금리산정 원칙 위배 포퓰리즘 부작용, 국민이 떠안아”

발권이익을 누린다. 하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지사 주장의 핵심은 저금리 혜택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다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민들의 낮은 신용도를 국가가 보증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지사의 주장이 금융시장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금융회사는 소득과 부가적 조건에 근거해 신용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이후 적정금리가 매겨지는 것은 해당 대출의 부실 처리까지 감안하게 된다. 기본대출권은 이런 기본 프로세스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기본대출권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신용도가 낮으면 금리가 높고, 신용도가 높으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시장에서 프라이싱(pricing)을 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



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소득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는 것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라고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선정하고 부실 채무를 관리하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대출 프로세스를 바꾼다는 것은 시중은행을 공공기관처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모럴해저드’ 취약점= 기본대출권의 핵심은 서민 대상 대출상품에서 발생하는 미상환 손실(최대 10%)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부실 대출 채권을 정부

가 갚아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대출 회수율이 저조하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상봉 교수는 “기본대출권에 최소 필요한 금액은 100조 원이다. 이자만 계산해선 안 되고 대출자가 갚지 못한 돈까지 계산해야 한다. 지금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상품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출 범위가 기업에서 가계로 넓어지면 재

정엔 위협이다. 지금 쓸 수 있는 재정은 10년도 채 안 남았다. 만약 기본대출권으로 재정을 지출하면 다음 정부에선 무조건 디폴트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기본대출권을 언급한 것은 경기도가 가져갈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제한한 것으로 보면 된다. 앞으로 실무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단정적으로 경기도 내 기본대출권 시행 여부를 말하기는 힘들다. 이 지사가 특별히 실무진에게 일각에서 나오는 재정 문제에 관한 특정한 의견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햇살론 보증비율 변화가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대위변제 발생 여부 (3개월 이상 지속된 연체)		채무조정제도 신청 여부 (4년 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낮은 보증비율 (85% 비율)	-	95% 보증비율에 비해 31%p 감소	-	95% 보증비율에 비해 17%p 감소
신용등급	+	신용등급 1단위 악화에 6%p 증가	+	신용등급 1단위 악화에 2%p 증가
햇살론 대출 횟수	-	1회 증가에 10%p 감소	-	1회 증가에 12%p 감소

※ 출처: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 활용해 저자 작성

“햇살론 공급효과 단기적... 결국 고금리 대출 손대” KDI “정책금융, 되레 서민신용 훼손”

‘채무조정 지원·보증비율 인하’ 제시

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서민 차주의 채무구조 개선과 신용점수 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오운해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이 카드 소비액,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과 2014년 햇살론·새희망홀씨를 이용한 대출자는 미이용자 대조군에 비해 카드 월소비가 10만~15만 원 증가하며, 이후에도 미이용자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신용점수도 미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2014년 햇살론 이용자들은 오히려 악화했다.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직후 개선됐지만 다시 감소해 미이용자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특히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은 후 1년 후에는 고금리 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대출을 통한 고금리 대출 감소 효과는 대출 직후부터 6개월까지만 유지됐다. 6개월 후부터 1년까지 고금리 대출 감소 효과는 남았지만, 그 폭이 현저히 축소됐다.

오 연구위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설정하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 새희망홀씨 이용

자들은 미이용자에 비해 대출 직후 신용대출 잔액이 유의하게 줄었지만, 이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났다”며 “햇살론 대출자들은 6개월 이후부터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하기 시작해 대출 2년 후에는 미이용자보다 많은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서민 차주의 채무구조·신용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배경 중 하나로 지나치게 높은 보증비율을 지적했다.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대출기관은 연체 발생 시 손실이 적아진다.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관리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햇살론의 보증비율이 85%였을 때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제도 신청 비율은 보증비율이 95%였을 때보다 각각 31%포인트(P), 17%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등급 개선 효과(1단위당 6%P)보다 큰 수준이다. 특히 보증비율이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금융권보다 대출모집인 기반의 저축은행에서 발급된 대출에서 확연히 컸다.

보고서는 운영방식 개선방향으로 신용관리교육과 신용상담을 통한 신용개선·채무조정 지원과 보증부 대출상품의 보증비율 인하를 제시했다. 더불어 대출한도 내에서 소액으로 나눠 대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주택과 도시에서 행복할 권리

주도권을 위해 HUG가 함께합니다

고민은 들어주고 걱정은 덜어주고!
당신의 주도권을 위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날까 걱정 안 해도 돼서 안심이에요”
주택분양보증

“전세보증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당당해졌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낡은 건물이 새롭게 바뀌니까 동네에 활기가 생겼어요”
도시재생금융지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제 기후변화 단체 시뮬레이션 결과〉

“10년 뒤 강우량 올해의 400배… 한반도 5% 침수”

세계 곳곳 ‘이상기후’ 몸살

“10년 뒤, 332만 명의 수해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다. 강우량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올해보다 400배 수준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5%가 침수돼 인천공항, 백스코가 잠길 수도 있다.”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기후변화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2030년 한반도 대홍수 시뮬레이션’ 결과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모의실험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후위기는 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2050 거주불능 지구’ 저자인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 온열 스트레스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매년 20일 이상 살인적 폭염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등 인간의 잔인한 행위가 인류를 위협했다면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이 우리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홍수·산불 등 기후재앙 시작돼

세계 인구 3분의 1 폭염 시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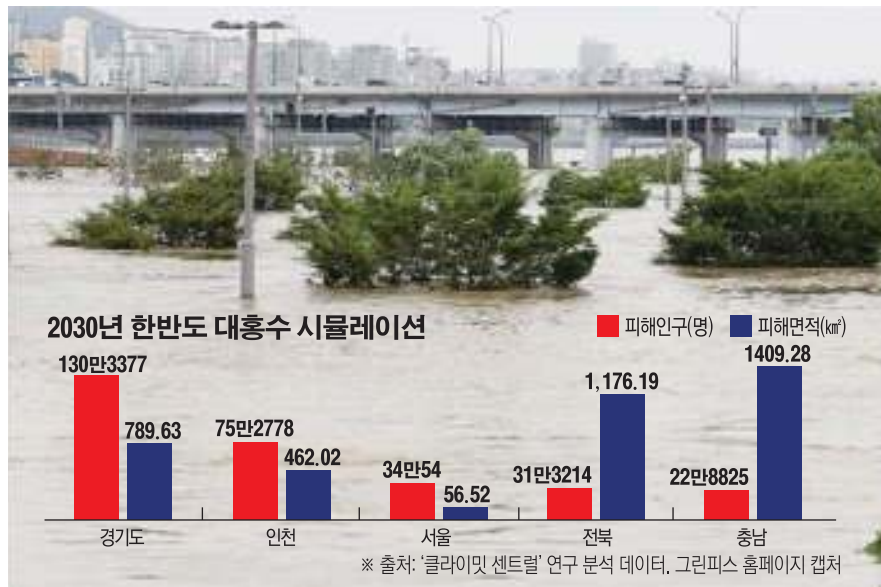
2050년 기후난민 1.4억 예상

유엔 탄소배출량 ‘0’ 목표 설정

재생에너지·생태계 복원 시급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로 지구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대멸종 사태가 일어난 2억5000만 년 전보다 오늘날 인류가 훨씬 더 빨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지난 6600만 년 중 어느 시점보다도 10배 이상 빠르다. 전문가들은 불과 지난 30년간 인류 역사상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 중 절반 이상을 배출했다고 주장한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목표를 세웠던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50년 목표치



를 ‘넷제로(net-zero·배출량 0)’로 다시 변경한 이유기도 하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는 온몸으로 경고 시그널을 보내왔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알렷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2013년 이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해수면 상승, 지

역별 침수 피해 영향을 예측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0월에 이미 강우량 역대 1위를 기록하지 않았나”며 “앞으로 매년 물폭탄 계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홍수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산불, 확산하는 감염병, 폭염과 가뭄 등의 기후재앙은 이미 수년 전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IPCC가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지속할 경우 2030~2052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5도만 올라가도 전 세계 산호초가 최대 90%까지 사라질 수 있다.

또 세계은행에서는 2050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난민 수가 약 1억4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시리아

난민의 100배 규모다. 유엔은 “2050년까지 기후난민 수가 최대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더 암울한 전망을 했다.

결국 2100년까지 기온이 섭씨 4도 이상 증가해 아프리카, 호주, 미국, 남아메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이 직접적 열기와 사막화, 홍수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는 충격적 예상도 나온다.

식량난, 폭염에 의한 질병과 사망, 홍수 등으로 전 세계 피해 규모는 무려 60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부의 2배 이상 규모다.

2015년 중국의 ‘남중국 아침 신문’에서는 “4도 이상 기온이 상승하면 상하이와 홍콩에 있는 4500만 명이 난민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넷제로를 위해 노력한다 해도 21세기가 끝날 즈음, 빙상 붕괴가 시작되는 분기점인 2도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경우 마이애미, 상하이, 홍콩을 비롯한 수많은 도시가 침수될 것이다. 또 다른 침수 위험 지역인 마셜제도의 외무부 장관은 최근 “지구온난화를 ‘대량학살’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과학자연합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긴급 행동지침 6가지’를 최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탄소 재생에너지 대체 △단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생태계 복원 및 보호 △식물성 섭취 확대 △무탄소 경제 전환 △지구온난화 안정화 등이다.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는 “기후변화는 ‘인간의 행동’ 변수가 결정적”이라며 “범세계적은 물론 각국의 정치적 자원에서의 움직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국 ‘기후악당’ 오명 쓰고도… 환경 고민 없이 ‘그린뉴딜’ 추진

수소車·일자리 등 성장 치중 화석연료 대체 방안은 미흡

한국은 세계에서 여전히 ‘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 ‘클라이밋 홈 뉴스’는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동추적(CAT)의 분석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지목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기후 관련 국제 비정부기구(NGO)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 2020’에 따르면 한국은 61개 중 기후변화대응지수(CMPI)는 58위, 에너지 소비 저감 노력은 61위로 ‘매우 미흡(very low)’한 수준이라고 지적받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을 기록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고, 석탄발전 비중은 4위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하위 두 번째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한국은 2009년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한 이후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오명을 벗고 저탄소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판 그린뉴딜’을 내놔다. 2025년까지 약 74조 원을 투자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

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일자리는 66만 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작 ‘그린뉴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문구만 표시됐다. 이 때문에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는 상관없이 수소차 확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장 논리만 가득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는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는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3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목표로 보이기도 한다.

이지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화석연료로 지탱해온 경제구조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 도전해야 하는데 정부 역시 전통적 경제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해 ‘그린 달’을 통해 2050년 넷제로(Net-Zero)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0~55%로 상향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 작업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정부는 이전에 짜놓은 틀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Chilsung
Cider



이런
청량함은
처음이야

Chilsung
Cider

× BTS

“공기업, 해외 석탄발전 투자 안 된다” 더 세진 환경 법안

21대 국회 ‘환경·기후 법안’ 살펴보니

지난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환경·기후 관련 법안들이 유독 눈에 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기후 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의원의 절반이 이미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에 동참한 상태다.

제안된 법안 중 상당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PCC의 2018년 특별보고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은 당사국 회의 결정문에서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특별보고서를 요청했다. 이에 IPCC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로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양이 의원은 발의한 또 다른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취지다. 환경 당국이나 사업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 수립 단계에서 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이 의원

입 모은 與野, 줄줄이 법안 발의

탄소배출량 최소 45%로 줄이고
기업 전력 100% 재생에너지 공급
기후변화 대응 지방재정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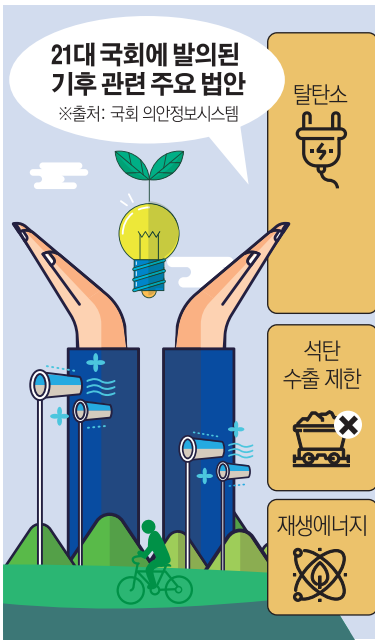
전문가 ‘경제논리 상충’ 우려

석탄·가스발전 기존 산업 위축
‘2050 넷-제로’ 등 명문화 필요
“미래세대 희생시키지 말아야”

은 “사회 전체가 바뀌려면 개별 사업 하나 하나가 아니라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도 대거 쏟아졌다. 이소영·우원식·김성환·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보협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해외 투자에 관여하는 공공기관 4곳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에 맞춰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안 지어도 똑같은 발전소를 해외에 지으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주요 내용
국가회계법·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양이원영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효과를 평가 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환경 당국 또는 사업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 평가 항목에 반영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허영	지방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효과를 평가 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이소영 김성환	전력 시장 내에서 환경 비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국내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 기반 확보
무역보협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산업은행법	이소영 우원식 김성환 민형배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 투자에 관여하는 한국전력,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김성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김성환 의원은 이외에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하겠다고 선언한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한국 기업의 가입을 돕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재 가입한 국내 기업은 LG화학이 유일하다.

이를 위해 현행 전력시장의 틀은 유지하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한국 사회의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든 재생에너지를 시급하게 늘려야 하기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

후변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치단체의 기후변화에·결산 집행 등을 평가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환경 관련 법안들은 여야 관계없이 필요성, 시급성을 공감하는 만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4개의 기후위기 관련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이에 동의한 의원만 149명에 달한다.

다만,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석탄·가스

발전소 등 기존 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경제 논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 발전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된 사례도 있다. 또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2050 넷-제로(net-zero·배출량 0)’ 등과 같은 더 큰 틀의 명문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경제 논리를 따르다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을 다른 의원들에게 설명, 전달하고 정부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정치는 시대 책임을 잃어야 한다”며 “정재 속에서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n@

산업계, 온실가스 저감 방점… 재생에너지 열풍

삼성전자, 글로벌 사업장 대상
100% 재생에너지 사용 추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소결공장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LG화학, 에너지위원회 만들어
온실가스 75% 이상 저감 박차

전자, 철강, 화학 등 탄소배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등 대책을 마련해 수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년 환경안전위원회를 열어 환경경영·기후변화 이슈와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 분야 임원들로 구성된 전자 협의체도 운영한다.

삼성전자 각 사업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509만8000톤(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재생에너지 사용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제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소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1544톤의 외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었다.

LG전자도 중장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지향점 중 하나로 ‘탄소 중립’을 꼽고 있다.

우선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7년 대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청정개발체

산업계 탄소 감축 대응 현황 ※출처: 각 사 반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회사	주요 내용
전자	삼성전자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전 세계 사업장 100% 재생에너지 사용 추진, 제품 사용단계 발생 온실가스 감소 과제 추진
	LG전자	생산단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 청정개발체제 사업 확대로 외부 온실가스 감축
철강	포스코	‘그린 프로세스·그린 프로젝트·그린 파트너십’ 기후변화 대응 3대 추진 분야 정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1, 2, 3 소결공장에 대기오염 저감장치 설치
	동국제강	노후화한 시설 친환경 설비 교체
화학	SK이노베이션	생산단계 그린 에너지 사용 지향, 친환경 신사업 진출
	LG화학	에너지위원회 운영, 2050년까지 온실가스 75% 저감 목표
	롯데케미칼	공장별 에너지 감축 목표 설정,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온실가스 워크숍

제(CDM) 사업을 확대해 외부에서의 탄소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철강 업계에서는 포스코 그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대 추진 분야로 그린 프로세스(Green Process), 그린 프로젝트(Green Product),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을 정립했다.

그린 프로세스는 철강과 소재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린 프로젝트는 친환경 철강 제품 시장 확대에 맞춘 에너지 고효율 철강재를 개발하고 보급을 늘리는 것이며, 그린 파트너십은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다.

현대제철은 최근 당진제철소의 제1, 2, 3 소결공장에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해 내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8년 기준 2만3292톤에서 1만 톤까지 줄어든 전망이다. 동국제강은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노후화한 전기로와 철근 압연라인을 온실가스배출이 적은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고 있다.

화학 업계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낮추기 위해 그린 에너지 사용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SK에너지는 미얀마에서 망풍, 깨 등을 활용해 저탄소 바이오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등 신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LG화학은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며 에너지 경영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해당 연도의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결정하는 식이다. 탄소 중립성장 전략에 따라 2050년까지 현재보다 75% 이상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롯데케미칼도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과 저탄소 공정에 기반을 둔 배출 저감 노력을 강화하고, 연간 단위로 공장별 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해 실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 사무설비를 도입한다. 에너지·온실가스 워크숍을 열어 임직원의 에너지 절감 인식도 개선하고 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英 등 탄소 감축 속속 법제화 한국도 속도 안 내면 큰 피해

韓, 탄소배출량 세계 상위권
석탄·가스발전 건설 ‘진행형’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세계무역시장에서 손해 볼 수 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기후환경회의의저감위원회전문위원을 지낸 이 의원은 범세계적 탄소 감축 움직임에 한국도 빨리 따라가야 한다고 경고한다.

실제 유럽 주요 국가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 0%를 실현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탄소 감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 주요 7개국 중 처음으로 ‘2050 넷-제로(net-zero·배출량 0)’를 목표로 한 법제화를 완료했다. 이어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도 같은 내용의 법을 만들었다. 이 외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독일, 스위스 등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세웠다.

일본은 IPCC 보고서 내용을 정책에 늘 반영한다. 지난해 열린 도쿄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 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자는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2050년 넷-제로 도쿄 전략’도 수립했다. 미국도 ‘넷-제로 실

천을 위해 연 2조달러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탄소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볼보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은 ‘2030~204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글로벌 TOP 기업들이 넷-제로 실현에 적극적인 것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어서다.

환경학자 솔로몬 시양, 마셜버크, 에드워드 미구엘의 연구에 따르면,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2100년까지 1인당 GDP가 50% 이상 감소할 확률은 12%다. 세계은행도 2018년 “탄소 배출량이 현 추세로 유지되면 8억 명의 생활 수준이 심각해지며 10년 안에 1억 명이 기후변화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은 탄소배출량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감축 노력은 세계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 감축 목표는 국제 기준의 50% 수준이며 석탄, 가스발전소 건설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원 사용 하겠다고 선언하는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한 기업도 LG화학뿐이다.

박준상 기자 jo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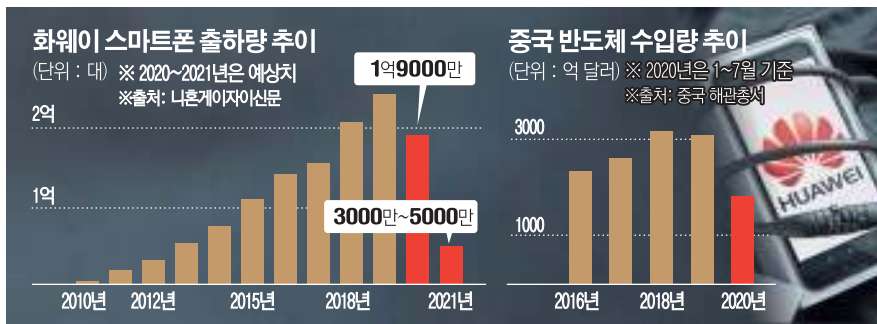
화웨이, 반도체 공급망 ‘셋다운’ 美 ‘끝장제재’ 中굴기 좌초 위기

對美 반도체 수입에 의존했던 中
공급 끊기며 기술굴기 원천봉쇄
소니, 화웨이용 수출 차단에 혼란
삼성, 점유율 확대 ‘반사익’ 기대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야심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중국은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자국 메이저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반도체의 자급자족 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존도가 워낙 높은 데다 기술력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도 없어서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진단했다.

15일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가 발표됨에 따라 미국 기술·장비를 이용해 미국과 제3국에서 생산된 모든 종류의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와 계열사로 판매하는 길이 전면 차단됐다.

이날 소니와 키옥시아(옛 도시바메모리) 등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잇따라 화웨이용 이미지센서와 플래시메모리 등 반도체 출하가 거부당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다급하게 미국 상무부에 수출 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 수출관리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부품 공급 루트를 일일이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만, 삼성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화웨이 제재의 반사이익과 시장 점유율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베이징 소재 리서치 업체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의 댄 왕 기술 애널리스트는 “반도체가 없다면 중국은 의미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중국이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으면 화웨이와 같은 대기업도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중국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량 등 새롭게 부상하는 영역에서 글로벌 1위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나 미국의 제재로 중요한 반도체 부품에 대한 접근과 제조업체의 기술 조달 능력이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공급망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일례로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겸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는 자회사인 하이실리

콘을 통해 반도체를 자체 설계한다. 그러나 이 칩을 생산하는 곳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다. 문제는 TSMC가 미국산 반도체와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제재 때문에 15일부터는 TSMC도 화웨이와 거래가 불가능하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이어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도 제재 대상에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SMIC도 최첨단 칩을 개발할 가능성을 원천봉쇄 당하게 된다. 가뜰이나 TSMC와 삼성전자에 몇 년 뒤쳐진 기술이 더 후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중국 반도체 부문이 전부 암울한 것은 아니다. 댄 왕 애널리스트는 “인터넷과 연결, 도시 교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신호등 등 많은 IoT 관련 기기에 아이폰 수준의 최첨단 칩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며 “이런 저가 부문이 바로 중국 기업이 지배하는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언덕서 굴러놓곤 자체동력?” 니콜라 ‘사기說’ 일파만파

〈미국 수소차 업체〉

주조조작 의혹으로 확대

미국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를 둘러싸고 ‘사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트레버 밀턴 니콜라 창업자는 2016년 12월 첫 전기트럭 ‘니콜라원’을 공개하면서 “완전히 자체 추진하는 차”라고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최근 ‘허위 광고이자 사기’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켰다. 니콜라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니콜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를 바로 잡는다”며 미국 시장조사기관 힌덴부르그리서치가 10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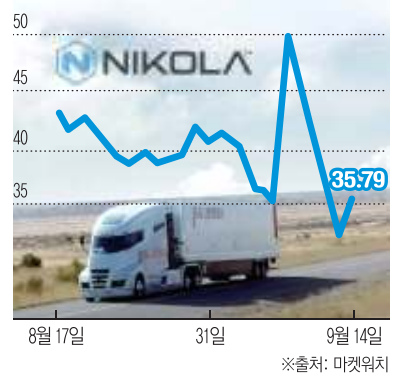
앞서 힌덴부르그는 10일 “니콜라는 과대 광고에 의한 사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힌덴부르그는 니콜라가 트럭 제작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를 외부에서 사들이는가 하면, 3년 전 공개한 전기트럭 ‘니콜라원’ 주행 영상은 언덕길에서 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니콜라는 이날 성명에서 “오해와 허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시작 단계에서 타사 제품을 사용할 때는 로고를 숨기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또 “영상은 3년 전 것으로, ‘트럭이 자체 추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트럭이 전기기술로 주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니콜라원은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됐다”며 “실제로 운행이 가능한 수소 연료 구동 전기트럭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션 앤더슨 힌덴부르그 설립자는 니콜라의 성명을 두고 “우리가 제

니콜라 주가 추이

(단위 : 달러, 현지시간 종가 기준)



기한 의혹에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며 “니콜라가 내놓은 답변은 새로운 의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더 구체적인 반박 보고서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니콜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246% 넘게 폭등했다. 8일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주가가 무려 41%나 뛰었다. 하지만 힌덴부르그가 10일 니콜라의 사기 의혹을 제기하자 그날 하루에만 11% 넘게 떨어졌다.

14일 니콜라 주가는 11.39% 폭등해 35.6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8% 넘게 빠지며 이날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다. SEC는 니콜라가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조사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니콜라를 둘러싼 사기 논란은 관련 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화그룹은 3년 전 니콜라에 1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힌덴부르그의 보고서가 공개된 후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11일 6% 가까이 하락했고, 14일에도 4% 가까이 빠졌다. 최해림 기자 rog@



“트럼프는 기후방화범?”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찾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로부터 산불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서 캘리포니아 관리들이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트럼프는 “곧 날씨가 시원해질 것이다. 지켜보면 된다”고 기후변화 영향을 부인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은 이날 델라웨어주 유세에서 “트럼프는 기후방화범”이라며 “그가 재선되면 지옥 같은 산불이 심해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새크라멘토/AFP연합뉴스

스가 취임 일성은 “규제개혁”

“통신요금 인하·中企·지방銀 구조조정… 민생 1순위”

스가 요시히데(사진)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취임 일성은 ‘규제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방장관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통신요금 인하를 비롯해 중소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과 후생노동성 조직 개혁 등이 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신문에 따르면 스가는 14일 자민당 총재 당선 확정 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베 신조

총리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내가 바라는 사회는 자조와 공조(公租), 공조(共助), 인연”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나타냈다.

특히 스가 총재는 “행정의 상하 관계와 기득권 등 나쁜 전례주의를 타파하고 규제 개혁을 진행시키겠다”며 개혁 의지를 다졌다. 그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개혁 대상으로 중소기업 통합과 지방은행 구조조정, 통신요금 인하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 통합·재편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스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공약이다. 일본에는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이 358만 개 있으며, 전체 기업 구성에서 99.7%를 차지한다. 스가 총재는 “허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며 중소기업도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스가는 지방은행 구조조정도 효율화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일본은 지방의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화하는 데다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지방 금융기관의 경영 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최해림 기자 rog@

게이츠 “전기트럭 사업성 의문” 도발 머스크 “아는 것도 없으면서” 발끈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돈이 많은 남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남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날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이야기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게이츠가 전기트럭의 사업성을 평가절하하자 전기차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머스크가 발끈했다.

게이츠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전기트럭의 사업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배터리가 크고 무거워서 전기트럭이 장거리에 적합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기술에 큰 진전이 있더라도 전기차는 18륜 화물차나 여객기와 같은 운송수단의 대체재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전기차 픽업트럭을 선보이고 생산을 앞두고 있는 테슬라에게는 김이 새는 이야기다.

테슬라는 지난해 새 전기차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과 고급 버전의 트라이 모터 ‘울휠드라이브(AWD)’를 공개했다. 사이버트럭은 내년 말, AWD는 2022년에 각각 생산에 들어간다.

머스크가 발끈한 포인트는 또 있었다. 게이츠가 자동차 산업의 전통 강자인 제너



독일 베를린 생산공장 건설 부지를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베를린/AFP연합뉴스

럴모터스(GM), 포드자동차는 물론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까지 언급하며 전기차 픽업트럭 기술 진전의 공을 돌리면서 테슬라는 쏙 뺀 것이다.

한 트위터 유저가 이 같은 게이츠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머스크는 “그는(게이츠) 아는 게 없다”고 응수했다. 전기차에 대해 아는 것도 없이 떠든다고 쓴소리를 날린 셈이다.

게이츠와 머스크의 불편한 관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월 머스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게이츠)의 말에 전혀 감동이 없다”고 공격했다. 앞서 게이츠가 한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아니라 포레스의 전기차인 ‘타이칸’을 구입했다고 말한 데 대한 복수였다. 김서영 기자 0jung2@



It's time to act

친환경을 실천하는
잉크 절약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을 주도하는 SK이노베이션이
광고에서도 친환경에 도전합니다

지구의 안녕을 위해



식품을 더 오래 안전하게 보관하는
친환경 포장소재



혼전은 가장 빨리, 거르는 가장 많이
친환경 안전 배터리



초저점도
친화성 엔진오일



친환경 에너지 절약



QR코드를 찍어
SK이노베이션의 더 많은
친환경 혁신들을 만나세요

이 광고는 자사 일반 인쇄광고 대비
잉크를 약 90% 이상 절약하여 폐잉크용기 발생을 억제하고
잉크 제작 시 발생하는 CO₂를 줄여 친환경을 실천합니다

민주 “독감 무료접종 확대 검토”… 방역당국 “실효성 없어”

추경, 통신비에 발목 잡히자
與, 반대 고수하다 입장 바뀌
절충안 마련 땀 주말께 처리
방대본 “전국민 접종 불필요”

이번 주 내로 7조8000억 원 규모 4차 추경정예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 민주당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15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만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민주당도 무료접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논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이 주장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을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통신비 지급안이 4차 추경 처리에 난항이 되자, 민주당도 야당의 일부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로써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 추경안 처리도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와 민주당은 독감 백신 주문과 생산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유료 접종분 1100만 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9300억 원에 달하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예산을 처리하려는 여당과 최소 12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예산을 요구하는 야당 간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오는 주말께 4차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은 기존 3000만 명 접종 분량 가운데 1900만 명 무료 접종 이후 남은 1100만 명 규모의 유료 접종분을 무료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 소요가 있으니 기획재정부와도 논의해야 하고, 부처에서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 처리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절충되면 상임위 통과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정계의 전망이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 원 이 동통신요금 1개월분을 지급하는 예산만 9280억 원으로 잡히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대안으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제안했다.

3차 추경 당시 독감 백신 무료지원 대상 을 19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해 예산 489 억 원이 확정됐지만, 이번 4차 추경으로 남은 1100만 명까지 무료지원하게 되면 추가 소요 예산은 최소 12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 전망이다.

일단 논의 여지가 마련되면서 여야 간 추경안 심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오는 18 일 추경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8일까지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처리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은 상임 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통과된다”며 “지금 상임위 한두 곳에서 심사가 시작됐다. 전액을 빚내서 하는 7조 8000억 원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국민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낮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백신은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백신도 지난 3월부터 이미 생산을 시작해 공급하는 상황”이라고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국회 ‘열린스튜디오’ 오픈

국회의원들의 유튜브 등 영상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열린스튜디오’가 15일 문을 열었다. 열린스튜디오는 국민과 적극 소통하자는 취지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총 “상속세 폐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춰야”

상속세 비중 0.1%P 늘면 성장률 0.6%P·민간투자 1.7% ↓

국내 학계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낮은 세율로 넓은 세원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

수는 상속세에 대해 “기업 경영의 연속성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실증분석 결과 높은 상속세는 경제성장과 민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OECD 16개국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포인트

트(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부담 완화는 국제적 추세”라며 “스웨덴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은 상속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기초공제액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었고 일본은 기업 상속에 대한 특별혜대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상속을 쉽게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소득세 확대 필요에는 동의하면서도 특정 계층에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세수 부담은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그 부담능력에 맞추어 고르게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연대”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인세 관련 2020 세제개편안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측면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현행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D세제에 관련해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제도’ 도입,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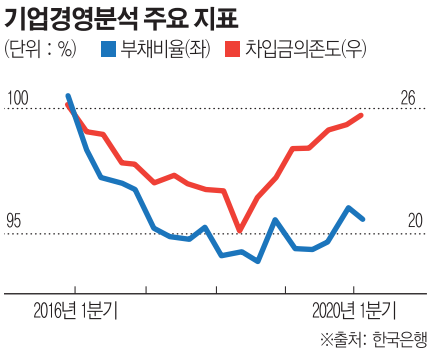
코로나에 매출 급감… 기업, 빚으로 겨우 버텼다

한은, 기업 3862곳 조사
2분기 매출증감률 -10.1% 최저
제조업 -12.7%, 석화 -26.8%
차입금의존도 17분기 만에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국내 기업들이 휘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빚으로 버틴 형국이다. 매출액 증감률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의 타격이 컸다. 차입금의존도는 17분기(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 한국은행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외감기업) 중 386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대표적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감률은 올 2분기 마이너스(-)10.1%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래 사상 최저치다. 직전 최저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 단종과 현대기아차 파업 여파를 겪었던 2016년 3분기(-4.8%)였다. 아울러 지난해 1분기 -2.4%를 기록한 이래 6분기 연속 하락세로 이 또한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기록한 하락세 이후 최장 기간 내림세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12.7% 떨어졌



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화학(-26.8%)이 크게 하락하고, 운송장비가 자동차 수요 부진으로 17.3% 하락한 때문이다. 기타 금속제품(-15.2%)과 비금속광물(-12.1%) 등도 하락 폭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업종별 격차도 확대됐다. 업종 및 지표별로 나눈 1분위(25%) 기업과 3분위(75%) 기업 간 분위수 격차는 1분기 30.5에서 2분기 38.3으로 확대됐다.

김대진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2분기엔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다”며 “이로 인해 국제유가 하락과 자동차 판매 부진 등으로 제조업 부문이 특히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 역시 6.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매 및 소매업은 6.9% 하락했고, 운수업은 항공사 실적 부진에 따라 15.8% 떨어졌다.

기업별로는 전산업에서 대기업이 -

1.9%에서 -11.3%로 하락했고 중소기업은 -1.8%에서 -4.9%로 하락했다.

수익성 지표 역시 부진했다.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3%로 전년 동기(5.5%) 대비 하락했다. 이는 1000원어치를 팔아 53원을 남겼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5.7%에서 5.3%로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5.2%에서 5.3%로 상승했다. 비제조업은 음식숙박업이 -2.97%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전환했으나, 운수업(6.39%)과 건설업(6.66%), 정보통신업(9.54%) 등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팀장은 “정보통신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비중이 늘고 판관비가 줄어든 영향이 있었다”며 “운수업의 경우 국제 화물운임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87%로 전기(88.2%) 대비 하락했다. 반면 차입금의존도는 직전 분기 25.3%에서 25.6%로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분기(26.2%) 이후 최고치다.

1분기 부채로 계상됐던 미지급배당금을 2분기 지급하면서 부채비율이 하락했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순발행 규모가 늘면서 차입금의존도는 상승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SW 업체에 갑질’ 9개 금융 공기업 자진시정

불공정 비용 전가 없기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프트웨어(SW) 업체에 대해 갑질 계약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불공정한 SW 계약서 조항을 자진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하고 자진시정안에 따라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당부했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성일종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SW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불공정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는 등 갑질 계약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SW 불공정계약 여부를 점검한 뒤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을 보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 공공기관과 SW업체가 협의해 정하되,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인력교체 시 SW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계약조항은 삭제한다. 공공기관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면 SW업체가 즉시 교체하도록 하거나, SW업체가 인력 교체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없어진다.

또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두 주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산출물 중 이미 개발된 SW에 기능이 추가(Customizing)된 산출물의 소유권을 공동귀속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체상금 상한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공공기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국토부, 구분환 인천국제공항 사장 해임 건의

작년 법인카드 내역 문제된 듯

국토교통부가 구분환<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분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임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고 내부절차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 사유 등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임 건의 사유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MITAG)’의 복상에 따라 국정감사보다 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장에게 현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 구 사장의 행방이 논란이 됐다.

당시 구 사장은 국감을 조기 퇴장한 후 공항 외곽을 점검한 뒤 인천

영종도 사택에서 머물렀다고 해명했지만, 경기도 안양의 한 고깃집에서 23만 원가량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깃집은 구 사장의 자택에서 불과 10분 거리였으며 영종도 사택에서는 55km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다. 또 구 사장은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이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등 직원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토부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구 사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여 왔다. 아직 감사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임 건의가 구 사장 개인 비위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한국-베트남 항공노선 주 4회로 확대

베트남 정부가 15일 한국을 오가는 정기 여객기 운항을 제한적으로 재개했다. 한국 노선은 인천-하노이 주 2회 운항에 불과했으나, 이날부터 인천-호찌민 주 2회 운항이 추가됐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국제선 여객기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족, 기업인 등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예외 입국을 허용하다 5개월여 만에 여객기 운항을 재개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전광판 모습.

베트남 정부가 15일 한국을 오가는 정기 여객기 운항을 제한적으로 재개했다. 한국 노선은 인천-하노이 주 2회 운항에 불과했으나, 이날부터 인천-호찌민 주 2회 운항이 추가됐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국제선 여객기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족, 기업인 등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예외 입국을 허용하다 5개월여 만에 여객기 운항을 재개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공공기관 입주기업 임대료 100% 깎아준다

산단은 50% 감면…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기 연장

코로나 대응 추가 기업 대책

정부가 공공기관 입주 기업의 임대료를 올해 연말까지 100% 감면한다. 국가산업단지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는 50% 깎아준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을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000개 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연말까지 최대 100% 감면한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에 대해선 50% 깎아준다.

산업부는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소관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4분기 예정된 4조 3000억 원 규모 투자와 물품 구매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계획된 약 5000명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인턴을 포함한 채용 규모는 한전 1169명, 한전 KPS 719명, 한국수력원자력 662명 등이다.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업의 수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중견기업의 수출신용 보증 한도를 현재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린다. 또 섬유를 시

작으로 전자, 기계, 조선 등 10대 업종별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연내 개최해 기업의 수출 활동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도 내놔다. 수주 절벽에 처한 기계 및 항공 제조 산업에 대해선 3000억 원 규모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감이 줄어 자금난을 겪는 뿌리산업은 계약 및 자재 구매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3배 올리기로 했다. 전시산업은 취소된 전시회의 온라인 전시회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앞으로 재개될 전시회에 대한 개최 비용 지원도 늘린다. 섬유산업은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1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산업부·방사청, 무기 국산화 750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무기 체계 국산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부는 15일 방사청과 방산 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한 ‘산업부-방사청 소재·부품·장비 관련 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방산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를 육성하는 첫 단추”라며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이 가시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개발비 지원 및 과제 관리를 수행하고, 방사청은 방산 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한다. 최종 개발에 성공한 부품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이거나 운용할 예정인 무기체계에 실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가능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부품의 대체 부품을 먼저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과제를 기획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도 선정 과제는 향후 5년 동안 총개발비 75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현산 “아시아나 ‘노딜’ 금호 탕”… 2500억 소송전 예고

‘M&A 무산’ 공식입장 표명

HDC현대산업개발이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의 책임이 매도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호산업을 비롯한 채권단과의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HDC현산은 15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 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 검토한 뒤 관련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은은 “지난 11일 발표한 간담회에서 산은은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금호산업이 지난 11일 HDC현산에 최종적으로 계약

“매도인 선행조건 미충족에 불발 질권 해지 등 법적 검토 후 대응” 금호·채권단과 진실공방 불가피

해지를 통보하며 끝이 났다. 이번 입장은 2500억 원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매수자의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계약 조건으로, 잠재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다.

하지만 HDC현산이 매도인의 선행조건 미충족을 계약 무산의 원인으로 지적함에 따라 이 부분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지적한 부분은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 내용이다.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에 2조8000억 원의 부채가 추가로 파악됐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HDC현산이 산은 등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의 ‘재실사’를 고집한 이유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 측에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채권단은 HDC현산의 재실사가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이는 인수단이 반년 이상 활동하면서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관련된 정보를 HDC현산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채권단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채권단은 ‘재실사’ 요구를 덜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봤다. 이 지점에서 의견이 가장 강하게 대립한다.

이날 HDC현산이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지난한 법적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M&A 과정에서 실제로 계약금이 반환된 사례가 있다. 2008년 당시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자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우선 제출했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9년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 1심과 2심에선 한화가 졌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최종 계약 전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된 탓이다. HDC현산은 이같은 한화 사례를 참고해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측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 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산 기자 jinsan@

‘사모펀드 쇼크’ 금융지주, 순익 11% ‘뚝’

상반기 지주사 경영실적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여파 전년 동기 대비 9400억 줄어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사들의 순이익이 1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디스커버리, 윗티머스 등 잇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친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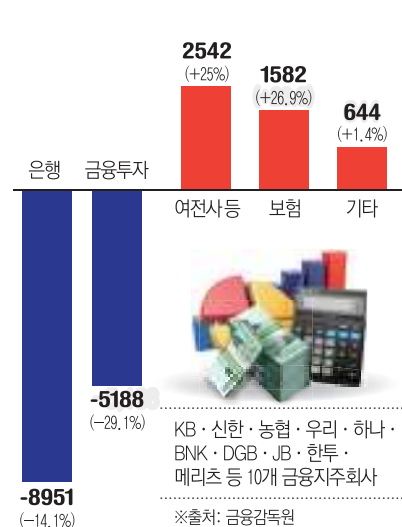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KB·신한·농협·우리·하나·BNK·DGB·JB·한투·메리츠 등 금융지주회사 10곳의 연결당기순이익은 7조6300억 원으로 전년동기(8조5700억 원) 대비 11.0% 감소했다.

수천억 원의 사모펀드매수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과 금융투자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상반기 은행의 순이익은 8951억 원으로 전년보다 14.1% 감소했다. 금융투자회사는 1588억 원을 기록 29.1%나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부분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영향과 금융투자부분은 자기매매 및 펀드관련 손익 감소가 금융권 이익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대규모 원금손

금융지주회사자회사부문별이익증감액
(단위 : 억 원)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실이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동시에 은행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물어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은행, 금융투자사)에게 전액배상 조치를 내렸다. 판매사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전액 배상하는 것은 처음이다. 라임 펀드의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 원, 하나은행이 364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등이다.

사모펀드 사태를 피해간 보험과 여신사의 순이익은 1582억 원, 2542억 원을

기록해 각각 26.9%, 25.0% 증가했다. 전체 금융지주의 6월말 기준 연결총자산은 2822조 원으로 전년말(2628조 원) 7.4% 늘었다. 6월말 금융지주의 총자산, 기본자산, 보통주자산 비율을 각각 13.70%, 12.27%, 11.19%로 전년보다 0.16%포인트, 0.17%포인트, 0.09%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194조1000억 원(7.4%) 증가한 2822조7000억 원이다. 자산 비중은 은행(74.8%)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융투자(10.8%), 보험(8.1%), 여신전문금융회사등(5.5%)이었다. 은행지주의 총자산비율은 작년 말보다 0.16%포인트 상승해 13.7%였다. 기본자산·보통주자산 비율은 각각 0.17%포인트, 0.09%포인트 상승한 12.27%, 11.19%였다. 모두 규제비용(총자산 11.5%·기본자산 9.5%·보통주자산 8.0%)을 웃돈다.

전체 금융지주의 부채비율은 29.05%로 전년말(29.04%) 대비 0.01%포인트 증가했다. 이중 레버리지비율은 118.69%로 전년말(120.26%) 대비 1.57%포인트 떨어졌다.

상반기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개사의 자회사 등 소속회사 수는 250개사, 점포 수는 8775개, 임직원 수는 16만 2417명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소상공인 2차 코로나대출 2000만원으로 한도 상향

1차 때 3000만원 이하 받았다면 23일부터 추가로 중복 대출 가능

2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000만 원 이내로 이용했다면,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선된 2차 지원 프로그램이 9월 23일부터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000만 원씩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지난 2월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조4000억 원을 지원했다.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 원의 긴급대출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조8000억 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 명에게 공급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경영으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9조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했다. 다만 대출금리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부채 증가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특히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출 신청자격이 넓어졌다. 기간 1차 대출 이용자는 2차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단 1차 대출을 3000만 원 이내로 받은 경우(53만명 중 약 92%)에 한정된다. 2차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오른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 1차 대출 이용자들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1차,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으신 분(3000만 원 이하)들도 다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흡사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 혼잡 등에 대비하고 방역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정부는 뉴딜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 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 이번 주부터 가동되는 실무준비단을 통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은평 기자 pepe@

<기업 PR>

BC카드, 온라인몰 추석선물세트 10% 할인

G마켓·옥션 할인쿠폰 제공

BC카드는 추석을 맞아해 온라인몰 추석선물세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7일까지 G마켓, 옥션 내 추석 선물 품목에 대해 ‘1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혜택은 한우, 과일, 전통주, 한과 등 ‘한가위빅세일 신선식품관’ 특가상품에 적용된다.

할인 쿠폰은 ID당 매일 2회까지 받을 수 있고 BC카드(신용·체크카드)로 당일 결제 시 사용 가능하다. 대형 유통사 계열 온라인몰에서도 BC카드 ‘추석선물 할인 이

벤트’를 진행한다.

16일부터 18일까지 SSG닷컴에서 판매하는 BC카드 할인 적용 추석선물세트를 구입 시 10% 할인(최대 5만 원)된다. CJ몰에서는 27일까지 BC카드 7%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쿠폰은 5만 원 이상 구매 시 적용 가능하며 기간내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된다. GS샵에서는 18, 25일에 한해 5만 원 이상 결제 시 5% 즉시 할인된다.

BC카드는 1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가맹점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BC카드 고객은 전월 실적



과 상관없이 5만 원 이상 결제 시 이용할 수 있다.

장길동 마케팅 본부장은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온라인 가맹점 기반으로 추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마련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트렌드에 맞추어 BC카드 고객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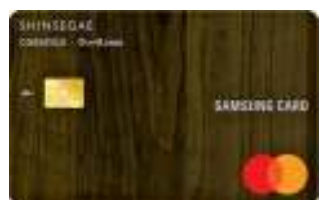
삼성카드 “까사미아 온·오프라인 매장 5% 할인”

매달 20만원까지 할인 혜택

삼성카드는 신세계그룹의 리빙·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까사미아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세계까사미아 삼성카드’를 15일 출시했다.

이 카드는 까사미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5%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매달 2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면 24·36개월 라이트 할부도 이용할 수 있다. 라이트 할부 이용금액은 24개월 이용시 24만 원, 36개월 이용시 36만 원이며 할부수수료는 연 6.5%다. 라이트할부를 쓰면서 이 카드



의 전달 이용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월 1만1000원의 결제일 할인이 적용된다.

생활요금 자동납부, 온라인 간편결제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아파트 관리비·통신비 등 생활요금을 자동납부하면 최대 10%, 커피전문점에서 결제하면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당신을 위한 은행은?

고석환 사장님
성신여대 '고석환 손만두국' 운영

동네 장사만 할 줄 알지
가게 알리는 법은 잘 몰랐죠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손님도 희망도 늘어나도록
도움을 받는다면 참 좋겠는데...

신한은행이 딱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신한은행은
고객의 모든 고민에
가장 따뜻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금융
신한은행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

신한은행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가게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인근 지점 내 광고판을 내어드립니다

*신한은행 전국 32개 영업점 내 디지털 전광판/포스터를 통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광고 무료 게시
(시범 운영 후 대상 영업점 확대, 모바일 쏘(SOL)에서도 서비스 게시 예정)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77-8000)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0-11035-2호 (2020.8.21~2021.7.3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현대차 수석부회장〉

정의선, 동남아 공략 2년…日 텃밭서 깃발 꽂은 현대차

베트남 합작사, 현지 판매 1위에
인도네시아 생산거점 40% 구축
15만대 규모 내년 하반기 가동
기아 셀토스 인도 중형 SUV 2위

출범 2년을 맞는 현대차 아세안 태스크 포스(TF)가 베트남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세안 TF는 2017년 10월 당시 정의선 현대차 영업담당 부회장(현 수석부회장)이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망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베트남과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선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위축기에 접어들면서 판매 절대치는 감소했으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2017년 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의선(앞줄 왼쪽)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 투자 협약식에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THAAD·사드) 구축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현대차그룹은 중국 현지에서 극심한 판매 부진에 시달렸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극단적인 중국의 존도를 벗어나 아시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고, 그 끝에 아세안TF를 추진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2019년 기준)는 약 330만 대로 글로벌 전체 판매량(약 8500만 대)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15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중국과 비교해도 20% 수준이다. 다만 잠재 성장성은 높게 평가돼 왔다.

지난 2년간의 아세안TF 성적표는 양호하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 현지기업 '탄콩'과 세운 합작법인이 효과를 톡톡히 냈다. 현대-탄콩은 출범 이후 단박에 일본 토요타를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베트남 자동차 생산협회(VAMA)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탄콩이다.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게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 총 7만9568대를 판매해 토요타(7만9328대)를 근소하게 앞섰다. 2위와 격차가 미미하지만, 현대-탄콩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원년 기록인 만큼 현대차 내부적으로 꽤 고무적이다. 전체 시장(약 32만2000대)을 고려해도 점유율이 25%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이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총 2만5358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21.3%로 1위를 지켰다.

일본차 점유율이 96%인 인도네시아에

서는 직접 투자가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15억5000만 달러(약 1조8200억원)를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생산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3분기 현재 전체 공정의 약 40%가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은 내년 하반기 양산에 나선다. 15만 대 규모로 출발해 향후 25만 대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아차 역시 인도를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 확대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인도 현지에서 소형 SUV 셀토스를 론칭한 기아차는 약 5개월 동안 4만5292대를 판매해 중형 SUV 시장에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 베트남 합작공장과 기아차 인도 공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내년 하반기 준공되는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역내 무관세 혜택이 유효한 만큼, 인도네시아 생산분을 다른 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차 '차세대 SUV 디자인' 신형 투싼 공개



그릴 일체형 주간주행등
세로형 메인 디스플레이
첨단주행보조시스템 장착

현대자동차 준중형 SUV 투싼이 4세대로 거듭났다. 첨단 디지털 기술과 3세대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한 새 모델은 다음 세대 현대차 SUV의 색깔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대차는 15일 '디 올 뉴 투싼(The all-new TUCSON, 이하 신형 투싼)'의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를 열



었다.

5년 만에 재탄생한 신형 투싼은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3세대 플랫폼으로 넓어진 공간은 물론, 향상된 주행 안정성과 안전도 △신규 파워트레인 적용으로 강력해진 동력성과 연비 효율 △쾌적한 감성 공조 시스템 및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앞모습은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처럼 빛의 변화에 따라 입체적으로 반짝이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을 갖췄다. 시동을 켜면 주간주행등으로 점등되는

'파라메트릭 주얼 히든 램프'를 더해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뒷모습은 후미등을 감싸고 있는 검정 테두리 위에 '파라메트릭 히든 램프'를 달았다. 후미등 점등 시 삼각형 형상이 모습을 드러내는 '히든 라이팅' 기법으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선보였다.

실내는 개방형 클러스터(계기판)가 눈길을 끈다. 대시보드를 위아래로 채운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이례적이다. 센터페시아는 폴터지 방식이고, 최근 등장하는 현대차답게 전자식 변속버튼(SBW)을 달았다.



모든 트림이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을 기본으로 갖췄다. 아울러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후측방 모니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가솔린 2435만~3155만 원 △디젤 2626만~3346만 원이다. 하이브리드는 내달 별도로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구광모 '신성장' 투자 美 원격의료기업 상장

LG전자, '암웰'과 시너지 기대

LG와 구글이 투자한 미국 원격의료 스타트업 암웰(amwell)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암웰은 최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주식보고서를 제출했다. 암웰은 주당 14~16달러로 보통주 3500만 주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얻는 자금은 총 4억9000만~5억6000만 달러다.

암웰은 2000개 이상의 병원을 포함하는 150개 미국 최대 의료 시스템에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플랫폼 방문자가 1000%가량 증가하는 등 원격의료 수요가 폭발했다. 이에 따라 암웰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1억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성장세가 커진 암웰에 IT 공룡 구글은 지난달 1억 달러를 투자했다. LG그룹 역시 이 회사에 투자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지난 6월 2억 달러(약 24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펀딩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지분율과 투자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LG 관계자는 "개별적인 지분율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LG전자가 원격 의료에 활용하는 수술용 모니터 등 장비 등을 제조하고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주력 계열사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등이 총 4300억 원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해 2018년 6월 설립한 해외 벤처 투자기업이다.

2018년 11월 라이드셀에 처음 투자한 후, 자율주행·인공지능(AI)·로봇 등 4차산업 및 그룹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업종에 투자하고 있다.

구광모 LG회장의 신성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첫 해외 출장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LG 테크 콘퍼런스'에 가는 도중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방문해 투자 현황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송영록 기자 syr@



'갤워치3' 티타늄 모델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3'의 티타늄 모델을 18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3 티타늄 모델은 혈압·심전도(ECG)와 같은 건강 관리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골프 앱 '스마트 캐디'도 기본 탑재했다. 미스틱 블랙 색상의 45mm 블루투스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77만 원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 초소형 이미지센서 4종 추가... '카툰' 줄인다

〈카메라 톡 튀어나옴〉

업계 첫 0.7μm 픽셀 라인업 구축
'1억 화소' 카메라 높이 10% ↓

삼성전자가 지난해 업계 최초로 0.7μm(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m) 픽셀을 활용한 모바일 이미지센서를 공개한 지 1년 만에 추가 라인업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초소형 신제품 4종을 추가 공개하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0.7μm 픽셀 기반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고화소카메라 트렌드에는 초소형 픽셀 이미지센서가 필수다.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화소를 담을 수 있으면서도 얇은 디자인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제품은 △0.7μm 픽셀 최초의 1억800만 화소 '아이소셀 HM2'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6400만 화소 'GW3' △초광각과 폴디드줌을 지원하는 4800만 화소의 'GM5' △베젤리스 디자인 구현에 최적화된 초소형 3200만 화소 'JD1' 4종류다.

삼성전자는 0.7μm 초소형 이미지센서에서도 고품질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픽셀의 광학 구조를 개선하고 신소재를 적용한 특허 기술인 '아이소셀 플러스(ISOCELL PLUS)'를 적용했다. 또 빛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ISO 값을 조정해 색재현성을 높이고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스마트-ISO(Smart-ISO) 기술도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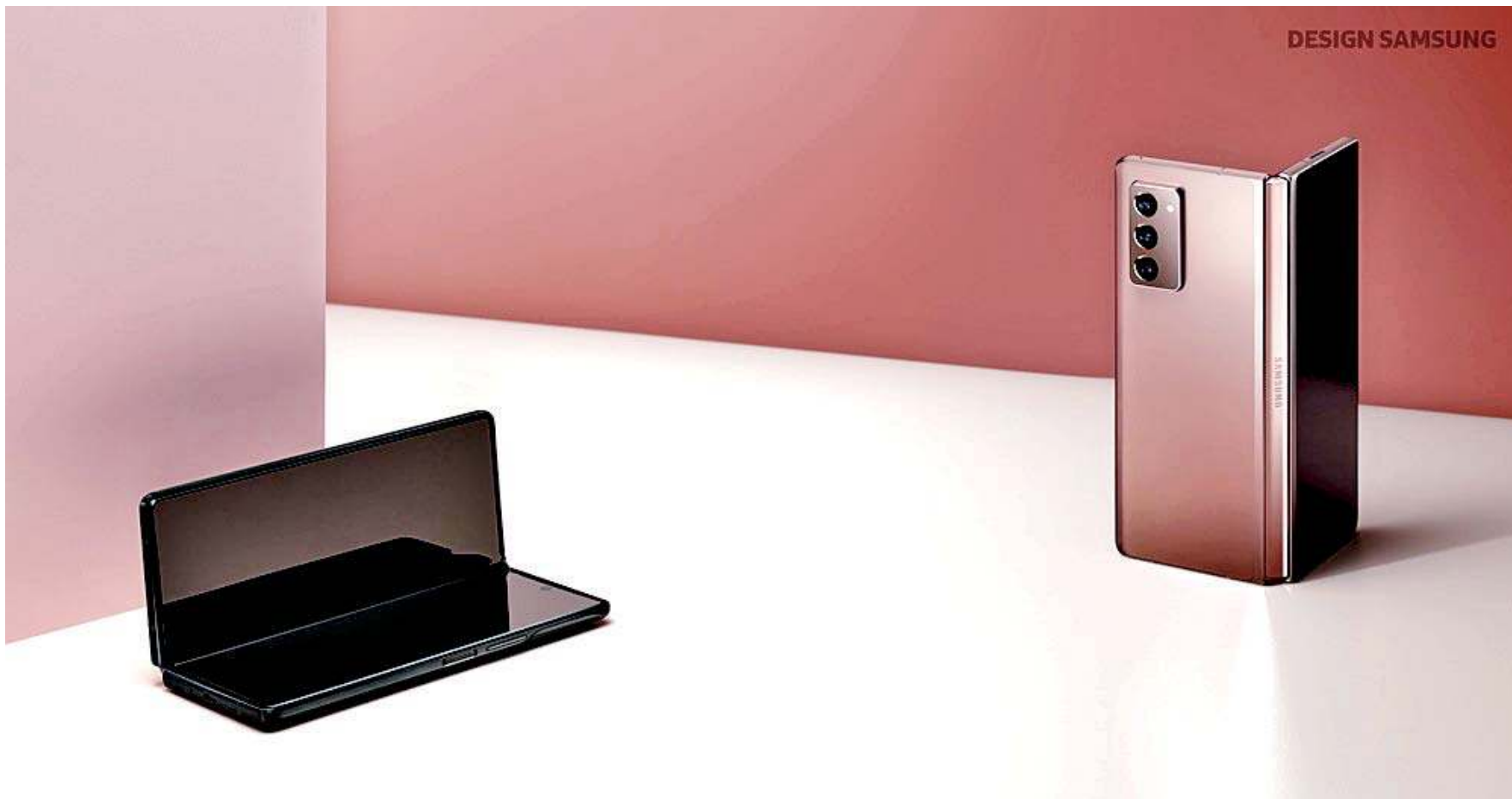
4분기부터는 차세대 '아이소셀 2.0'과 '스테거드 HDR' 등 첨단 센서 기술을 적

용할 예정이다.

'아이소셀 2.0'은 컬러필터 사이의 격벽 구조를 효율화해 빛의 손실과 픽셀 간 간섭현상을 최소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감도(Sensitivity)를 최대 12% 높일 수 있다. 스테거드 HDR(staggered High Dynamic Range)은 픽셀이 빛에 노출되는 방법을 개선한 기술이다. 이미지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면서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7μm 픽셀로 1억800만 화소 제품을 구현할 경우, 0.8μm를 이용할 때보다 이미지센서의 크기를 최대 15% 줄일 수 있다. 이미지센서가 작아진 만큼 카메라 모듈의 높이도 최대 10% 낮아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높이를 낮출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펼치면 더 큰 세상, 더 편리한 멀티태스킹

폴더블 카테고리를 선도하고 있는 삼성 전자가 ‘스마트폰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한다. 삼성전자는 이달 18일 한계를 뛰어넘은 ‘갤럭시 Z 폴드2’를 공식 출시한다. 소비자들은 239만8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사전 예약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갤럭시 Z 폴드2는 폴더블 폰만이 가질 수 있는 혁신적인 경험을 한 차원 더 확장했다. 커버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키워 사용성을 개선하고, 사용자 환경(UI)을 정교하게 다듬어 다양한 순간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층 시원해진 화면. 먼저 반으로 접었을 때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기존 4.6형에서 6.2형으로 확장했다. 이는 접은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비슷한 크기다.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 역시 기존 7.3형에서 7.6형으로 넓어졌다. 마치 소형 태블릿에 견줄만한 크기로,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서 펼쳐 다양한 콘텐츠를 몰입도 있게 즐길 수 있다. 여기에 화면 위쪽 노치를 없애고 베젤을 얇게 가다듬은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더해 안팎으로 ‘딱 찬’ 화면을 완성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오가듯,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유려한 활용이 가능하다. ‘접은’ 상태에서도 콘텐츠 감상이나 사진 촬영, 메시지 답장까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고 더 확장된 경험을 원할 땐 간편히 ‘펼쳐’ 대화면의 장점을 온전히 누리면 된다.

커다란 화면을 ‘분할’하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늘어난다.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

삼성 갤럭시Z폴드2 18일 출시
239만원...사전예약부터 관심

채팅하며 사진 찾고 영상 재생
자주 쓰는 ‘화면 분할’ 저장 가능

화면 키우고 힌지 내구성 개선
사용자중심 설계 높은 만족도



으며 사진을 보내고 싶다면, 창을 하나 더 열어 앨범에 들어가 사진을 드래그해 첨부하면 된다. 하나의 앱을 여러 개의 화면으로 쓰는 기능도 새롭다. 브라우저로 뉴스 기사를 보며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또 다른 브라우저를 열어 단번에 검색할 수 있는 식이다. 자주 쓰는 분할 구성을 ‘멀티 윈도우 트레이(Multi-Window Tray)’에 저장해두면 분할된 상태 그대로 저장돼 같은 구성의 멀티 화면을 빠르게 펼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형태를 변화하는 것은 ‘폴더블’ 폰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목적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알맞게 바꾸고 매 순간 가장 필요한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갤럭시 Z 폴드2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각도로 바꾸며 쓸 수 있는 ‘플렉스 모드(Flex mode)’를 지원한다. 갤럭시 Z 폴드 2를 일정 각도로 펼쳐 고정하면, 앱이 ‘플렉스 모드’에 맞춰 위·아래 화면으로 분할된다. 이미지 영역과 컨트롤 부분의 화면이 나뉘어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적당히 펼치거나, 반으로 접은 채로 세워 쓰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로 활용할 수 있다.

‘아라미드 스탠딩 커버’를 함께 활용할 때, 변화는 더욱 무궁무진하다. 갤럭시 Z 폴드2를 액자처럼 세워둘 수 있고, 쓰임에 맞춰 원하는 만큼 접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오브제를 상단 탑 뷰로 촬영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 접으면, 이미지를 미리 확인하며 각도나 구도를 조절할 수 있어 더 넓은 시야에서 꼼꼼하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다.

‘아라미드 스탠딩 커버’는 사용자에게 ‘양손의 자유’도 선사한다. 화면을 접은 뒤 어느 곳이나 편하게 거치할 수 있어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즐길 수 있다. 탁 트인 넓은 화면으로 눈이 편안한 것은 물론, 상·하단이 자동으로 분할되는 플렉스 모드가 더해져 다각도의 새로운 경험을 열어준다. 접은 상태로 영상 통화하며, 아래 분할 화면을 통해 메모를 남기는 등 사용자의 패턴에 맞춰 동시에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감각적인 미스틱 브론즈와 클래식한 미스틱 블랙, 두 가지 컬러로 이루어진 갤럭시 Z 폴드 2는 같지만 다른 매력으로 사용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준비를 마쳤다. 오묘하게 빛나는 헤이즈 효과가 더해진 미스틱 브론즈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깊은 빛을 담았으며, 미스틱 블랙은 절제된 세련미로 도시적인 분위기를 내뿜는다.

한층 단정하고 깔끔해진 ‘외형’도 소장 가치를 높이는 포인트다. 모든 면과 선을 굵김 없이 하나로 이어 섬세하게 가다듬었다. 몸체와 힌지(경첩)는 동일한 컬러와 질감으로 묶어 통일성을 부여했다. 슬림하고 견고해진 바디 프레임은 매끈한 그립감을 완성해 손에 ‘착’ 감긴다.

철저히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디자인한 갤럭시 Z 폴드2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선사한다. 생활 속 모든 사용 순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사용자를 빛내줄 수 있는 일종의 파트너로 진화했다.

SAMSUNG

프리미엄 감성과 기술의 결합 톰브라운 에디션 글로벌 완판행렬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Z폴드 2 톰브라운 에디션’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톰브라운 에디션은 추첨으로 구매자를 뽑고, 가격도 396만 원에 달하는데도 국내에서만 23만 명 이상이 응모했고, 중고거래 시장에선 이미 수백만 원 웃돈을 얹어 사려는 사람도 등장했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사전예약도 줄줄이 완판 행렬이다.

톰브라운 에디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갤럭시 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이 출시된 2월, 국내 사전예약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갤럭시 Z플립부터 이번 Z폴드2까지 톰브라운과 협업해온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디자인전략그룹장 김홍민 상무는 최근 자사 뉴스룸을 통해 톰브라운 에디션 인기 요인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기술 비전의 완벽한 융합’을 꼽았다.

명품 브랜드 톰브라운이 가진 프리미엄 감성을 스마트폰 제품으로 옮겨오려는 노력이 성과를 봤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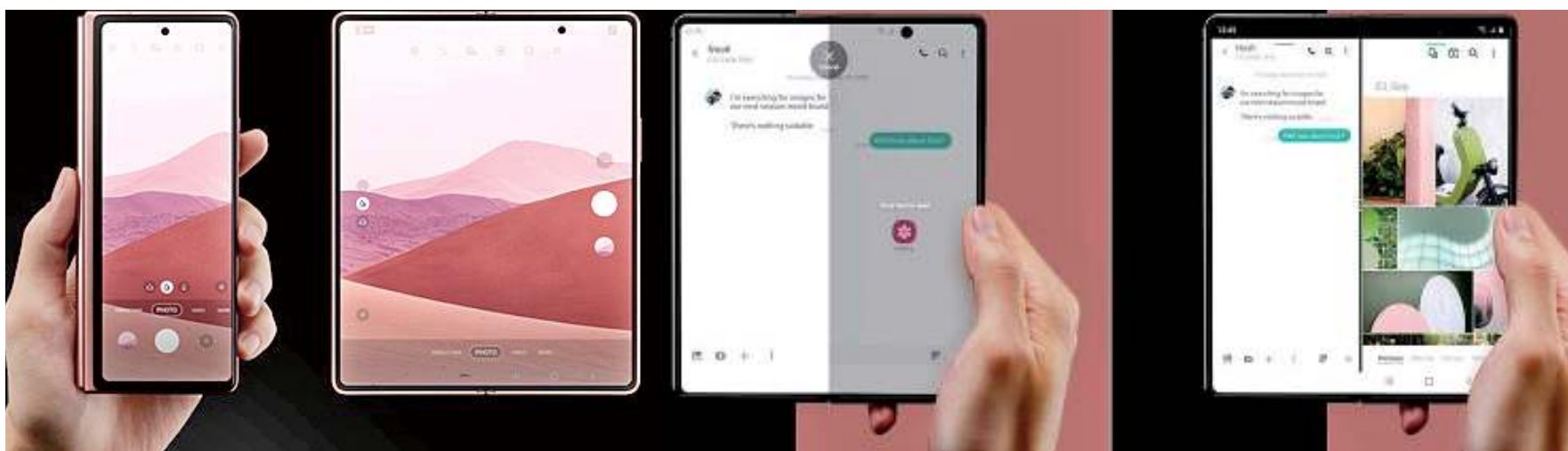
물론 서로 다른 분야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두 브랜드의 협업은 양사에게 모두 큰 도전이었다. 그렇지만 김 상무는 “정체성이 분명한 모바일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이 만났을 때, 새롭고 대담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갤럭시 Z폴드2에선 톰브라운의 시그니처 패턴을 실제 패션 원단 질감과 같은 섬유 소재로 입체 적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외관 디자인뿐 아니라 톰브라운의 감성을 담아 만든 새로운 잠금 화면, 전용 사진 필터, 아이콘 등도 제공된다.

가죽 플립 커버 역시 갤럭시 Z폴드2와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해 프리미엄 지갑과 같은 느낌을 줬다. 커버의 안쪽은 톰브라운의 상징인 ‘시그니처 4-bar’ 디자인을 적용해 실용성도 더했다.

김 상무는 “갤럭시 Z플립이 콤팩트하고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강조했다면, 갤럭시 Z폴드2는 더욱 정제되고 모던한 느낌을 준다”라며 “펼쳤을 때 7.6형 대화면뿐 아니라, 접었을 때도 군더더기 없는 시원한 폴스크린으로 더욱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강조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톰브라운 에디션에 포함된 웨어러블 기기 역시 특별함을 더했다. 갤럭시 워치3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회색 메탈 프레임과 ‘시그니처 4-bar’ 패턴을 적용했고, 멀티 컬러 스트라이프 가죽 스트랩, 블랙 스트랩도 추가해 더욱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톰브라운 디자인의 가죽 케이스를 제공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면에서도 케이블, 충전기 그리고 더스트 백 등 내부 구성품까지 톰브라운 색채가 묻어나게 디자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출판 워크숍’ 배동욱 회장 탄핵

임시총회 열고 투표자 24명 만장일치 탄핵 의결
김임용 회장 권한대행… 내년 2월 차기회장 선거
배 회장 “억지 주장… 회장 권한 이어갈 것” 반발

‘출판 워크숍’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내홍을 겪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동욱 회장을 탄핵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5일 서울 강남구 한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 탄핵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49명 중 현장 참석자 24명, 위임참석자 5명 등 총 29명이 참석했다. 이중 위임장을 갖고 참석한 5명은 투표에서 배제돼 총 투표 인원은 24명이며, 투표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의결했다.

당초 의결권이 있는 소공연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공연은 이들 중 7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의결권이 제한됐

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결권이 있는 단체는 49개이며, 이중 과반수(25명)가 참석해 회장 해임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배 회장은 즉각 해임됐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대행을 맡게 됐다. 임기는 내년 2월 차기 회장 선거까지다.

앞서 배 회장은 ‘출판 워크숍’에 이어 가족 일감 몰아주기, 도서구입 등 보조금 부당 사용 등 문제가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소공연 노동조합은 배 회장을 △횡령 △배임 △업무방해 △공문서 위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가 1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배동욱 회장 해임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쇄신을 다짐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소공연엔 시정 명령을, 배 회장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보조금으로 도서를 구매하고 이를 워크숍 현장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이날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은 임시총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앞서 이뤄진 소공연 사무국 조직개편을 백지화하는 등 배 회장 취임 이후 조치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음달 중으로 회원조직 정비, 환수조치 등 중기부 지적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민의를 대변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부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전국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께 그간 소공연 사태로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사죄드린

다”며 “새로운 집행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 처지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정부, 국회, 중기부 등과 새로운 동반자 역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동욱 회장은 소공연의 탄핵 결정에 “억지 주장”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회장으로서 권한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이통3사 ‘채팅플러스’ 카톡채널에 도전장

‘기업메시징 서비스’ 출사표
그룹채팅·대용량 파일 전송
기업 인증 통해 스미싱 차단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채팅플러스(채팅+)’를 통해 기업들의 알람 문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카카오톡채널(구 플러스친구) 시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기업메시징 시장을 이미 확고하게 선점한 카카오톡과 후발 주자인 이통사들의 격전이 예상된다.

15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공동으로 서비스 중인 메시지 서비스 ‘채팅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차세대 표준 문자 규격(RCS)을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한 기술이 적용됐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앱(메시지 앱)으로 상대방 프로필 화면에 파란색 발광선이 뜨면 두 사람이 채팅플러스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016년 이후 스마트폰 기종에 탑재된 상태로 출고됐으며, 아이폰에선 사용할 수 없다.

채팅플러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중요



채팅플러스 예시 화면

한 알람에 대해 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은 카드 사용 내역 알람 문자와 함께 세부내용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됐을 때 스미싱 걱정 없이 링크를 조회할 수 있다.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발신자가 카드회사 이름으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유사한 이름을 등록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불필요한 스팸 문자를 방지하는 효과도 볼 수 있고, 메시지 당 5메가(MB) 이내

선 데이터 차감이 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통사들은 영수증과 신용카드 승인, 택배 알람 등 정보성 메시지 이외에도 메시지 디자인을 개선해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요도가 높은 문자 전송 수가 많은 금융사가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KB금융그룹과 농협, 롯데금융그룹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고, 수만 개의 기업이 서비스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플러스 기업메시징 서비스 카카오톡이 서비스 중인 기업메시징 ‘카카오톡채널’ 시장을 뺏아 올리, 새 시장을 개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톡 기업 알람 문자 서비스는 2015년 9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알람톡으로 시작해, 기업메시징 시장을 선점한 상태다. 채팅플러스는 친구 추가 없이도 검증된 사업자가 보낸 알람 메시지만 장점이 있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에겐 서비스할 수 없다는 단점이 명확하다. 다만 아직 기업들이 문자 메시지를 고객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기본 알람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2500만여 대 보급됐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김우람 기자 hura@

김윤수 KT파워텔 대표 “IoT 전문기업으로 도약”

2023년 IoT 매출 360억 목표
스마트 시티 등 신시장 개척

“무전 시장을 넘어 사물인터넷(IoT) 시장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김윤수(사진) KT파워텔 대표는 15일 “KT 그룹 내 모빌리티 IoT 전문 기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KT파워텔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KT 그룹의 IoT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주력 사업인 무전통신 서비스를 넘어 IoT 사업으로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 2023년 IoT 매출 36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KT파워텔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모빌리티 분야와 저전력사물인터넷 표준기술(eMTC)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oT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무전 통신과 차량 관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한다. ‘파워ADAS’, ‘MDT’, ‘DTG’와 같은 기존의 차량-안전관리 IoT 상품을 고도화하고, 올 11월 ‘어린이 하차확인 시



스템’ 설치가 법제화되는 어린이 통학 버스, 콜드 체인(냉장 배송) 분야까지 시장을 확대한다.

또 KT 그룹과의 사업협력을 통해 eMTC 시장에 진출한다. 최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형 전기차전거,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위치 정보와 배터리 잔량 모니터링 등을 위해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에 KT의 eMTC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파워텔은 전기차전거 ‘일렉클(elecle)’을 운영하는 ‘나인투원’과 사업 제휴를 진행하는 등 올해 안에 전기차전거 및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에서 약 43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로 등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분야에서도 사업 기회를 찾을 계획이다. 모빌리티, eMTC 등 새로운 사업에서 추가적인 IoT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도 조성한다.

김우람 기자 hura@

규제자유특구 1년, 일자리 662개 늘었다

규제자유특구 14곳에서 1년간 662명이 추가 채용돼 지역 일자리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차 규제자유특구의 고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부각해 수도권은 지정에 배제했다. 현재까지 3차 지정에 21개 특구가 지정됐다. 1, 2차는 각각 7곳으로 총 14곳이며 이곳의 특구 사업자는 총 246개사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중 병원, 공기업 등 46개사를 제외한 200개사의 사업장별 고용 현황을 직접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200개 사업자의 고용 현황은 특구 지정 전 4153명과 비교해 1년간 662

중기부 200개사 고용현황 조사
특구 지정 전보다 15.9% 늘어
내년까지 981명 추가 고용계획

명(1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94명은 비정규직이다. 200개사는 내년 말 실증 종료 시까지 총 981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에서는 98명이 늘어 최대 고용 증가를 기록했다. 울산 수소특구(63명)와 대구 첨단의료기기분야(81명), 대전 바이오메디컬 분야(51명) 특구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두드러졌다.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이전한 곳은 100개사로 이들의 고용 증가 비중은

39.6%(262명)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262명, 39.6%), 중기업(169명, 25.5%), 중견기업(111명, 16.8%)이 전체 특구사업자 일자리 증가의 81.9%(542명)를 차지했다.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81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662명)의 72.7%를 차지했다. 이중 모빌리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의 비중(320명, 4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3년 미만 14.2%(94명),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 14.2%(94명), 창업 후 7년 이상이 71.6%(474명)로 전체 특구사업자 중 창업 후 7년 이상 기업에서 고용증가 폭이 컸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대교, 성인 어학시험 플랫폼 ‘반보’ 론칭

4000개 동영상 콘텐츠 보유

에듀테크 교육그룹 대교가 언택트 시대를 맞아 성인들이 체계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어학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성인 어학시험 플랫폼 ‘반보(Vanvo)’를 15일 론칭했다.

반보는 ‘교육 플랫폼의 역할을 다하며 함께 걷는 걸음, 미래의 가능성을 키우는 동반자’의 의미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간편하고 전문적으로 어학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4000개 이상의 동영상 콘텐츠를 보유한 어학시험 강의사이트다.

학습자가 수준에 따라 원하는 학습 콘

텐츠를 선택, 체계적으로 어학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반보에서 독점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와 제휴사의 우수한 어학시험 전문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학습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고객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학습 콘텐츠 제작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학습자가 원하는 강사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고객 선택권을 확장했다. 향후 반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독점 콘텐츠를 제작하고, 강사가 직접 기획·제작한 콘텐츠의 비중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yes@

IBK-항균카드,
너만 있으면 안심!

카드 앞·뒷면
항균필름 코팅

항균성 99.9%로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전파 방지

국민 안심 카드

DailyWith

데일리워드

DailyWith 데일리워드

·발급대상 : 개인(본인 및 가족)

·브랜드 및 연회비 : Mastercard / UnionPay 1만2천원, BC(국내전용) 1만원

건강지킴이 ·항균성 99.9%,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전파 방지

생활도우미 ·1% 캐시백(6대 생활영역), 최다 사용 생활영역 1% 추가 캐시백
6대 생활영역 : 음식점(커피), 온라인쇼핑, 마트(편의점), 대중교통(주유), 통신비, 병원비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 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 시, 혜택 제공조건 등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0-C2b-07760호(2020.08.27)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240호(2020.08.12) 게시기한: 2023.08.1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신규출시(2020.08.24)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 · 도산 ·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고지 해 드립니다. 개별고지 방법: 카드대금정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문 문자메세지 중 하나 · 필요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 회원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우를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글로벌 ‘집콕’이 길 터준 ‘K-브랜드 해외 진출’

SPC ‘파리바게뜨 캐나다’ 설립
내년 토론토 등 매장 오픈 예정
매일유업 ‘셀렉스’ 중시장 첫발
드라마·영화 인기로 간접홍보

코로나 시대 전세계적인 ‘집콕’의 장기화가 K-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영화 기생충의 흥행으로 세계의 집콕족들이 K-콘텐츠를 주목하면서 한국 제품에 친근함을 느끼는 이들이 증가한 덕분이다. 실제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이 집계한 결과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아시아권 7개국 넷플릭스 시청 1위를 차지했고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쓰’ 등도 상위권에 랭크됐다.

K-콘텐츠의 인기가 K-푸드, K-뷰티, K-패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토종 소비재 브랜드들이 드라마 등장인물을 통해 간접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 19’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혀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K-브랜드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소비재 기업은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거나 해외에서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역설적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까지 해외 진출을 확대하며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진출 국가를 확대한데 이어 아모레퍼시픽 설화수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꼽히는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파리바게뜨는 ‘파리바게뜨 캐나다’를 올 상반기 설립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도시에 첫 매장을



파리바게뜨 렉싱턴 에비뉴점.

사진제공 SPC그룹

열 계획이다. SPC그룹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를 4대 거점으로 삼는 글로벌 사업 확대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캐나다 진출은 2005년 파리바게뜨가 북미의 거점 국가인 미국에 첫 진출한 후 1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본격적인 시장 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매일유업의 성인영양식 전문 브랜드 ‘셀렉스’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티몰 글로벌(Tmall global)에 단독 플래그십스토어를 오픈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중국의 성인 영양식 시장 규모는 7조원에 이른다.

국내 1세대 수제맥주기업 카브루도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수출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캔맥주 ‘구미호 맥주’로 알려진 카브루는 올 초부터 홍콩, 싱가포르, 영국, 몽골까지 수출 국가를 늘렸다.

외식기업 디딤이 운영하는 마포갈매기는 최근 태국 현지 기업인 ‘63 Rich Culinary Co Ltd’와 태국 방콕에 매장을 오픈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 이은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K-뷰티의 선봉장인 아모레퍼시픽 설화수는 인구 14억 인도 시장에 지난 7월 첫 발을 내딛었다. 설화수는 인도의 뷰티 전문 유통사인 나이카(Nykaa) 온라인 채널을 통해 브랜드 대표 제품을 소개했으며 하반기에는 델리, 뭄바이 등 인도 주요 도

시의 럭셔리 오프라인 매장인 나이카 럭스(Nykaa Luxe)에도 추가로 입점할 예정이다.

코스닥 기업인 세화피앤씨의 ‘모레모’는 일본 론칭 7개월만에 일본 오프라인 판매점 수 1000개를 돌파했다. 모레모는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인 돈키호테 84개점과 상브르 91개점, ZAGZAG 70개점 등에 잇따라 입점하면서 누적 판매점 1013호점을 달성했다.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닥터더퍼런트도 일본,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진출했으며, 아시아권을 넘어 북미, 유럽에 도전장을 냈다. 브랜드 베스트셀러인 비타 A 크림을 비롯해 주요 제품들을 선보이게 된다.

K-패션 분야에서는 더네이처홀딩스가 전개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의 역 수출 패거리가 눈에 띈다. 북미와 유럽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제품 공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미국과 캐나다, 유럽 현지에 의류 및 가방, 여행용 캐리어 등을 선보이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한류 콘텐츠에 등장하는 제품 니즈도 늘고 있다”며 “코로나가 내수, 수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한 역설적인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매장 배치’ 고정관념 깬 백화점들

롯데백 영등포점 화장품관
MZ세대 특화 3층으로 옮겨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1층을 식품전문관으로 꾸며
지역별 특성 따른 맞춤 전략



백화점의 불문율인 1층 화장품 매장 공식이 속속 깨지고 있다.

백화점의 얼굴로 여겨지는 점포 입구에 식품 전문관을 과감하게 전면 배치한 신세계 타임스퀘어점에 이어 롯데백화점도 영등포점의 화장품 코너를 3층으로 이동시킨다. 대신 1층은 젊은층의 발길을 끌만한 스니커즈 리셀(Resell·재판매) 매장

과 한정판 유니폼 전문점을 전면 배치한다. 롯데쇼핑은 영등포점 리뉴얼을 통해 롯데백화점 최초로 화장품 매장 전체를 3층으로 이동해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영등포점 전관 리뉴얼 작업의 일환이다. 기존에 화장품 매장이 있던 1층에는 12월부터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아웃 오브 스타’와 한정판 풋볼 레플리카 유니폼 전문점 ‘오버더피치’, 신개념 감성편의점 ‘고잉메리’를 입점시킨다.

새로 꾸며질 3층은 MZ세대들이 선호하는 특화 코스메틱 콘텐츠로 구성한다. 먼저 청량리점에 이어 두번째로 ‘아모레 특화관’을 오픈하기로 했다. 이 매장은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뷰티 매장으로 밀레니얼 세대에 특화됐다. 젊은층 관심이 높은 럭셔리 향수도 전면

에 내세웠다. 다음은 한국 최초로 ‘자도르’, ‘소바주(남자향수)’ 존을 선보이고, 샤넬도 ‘레조드 샤넬’ 존을 마련했다. 매장 구성에 변화를 준 백화점은 롯데가 처음은 아니다. 직선거리 200m 떨어진 서남권 맞수 신세계 타임스퀘어점은 연초에 1층을 아예 식품 전문관으로 꾸몄다.〈사진〉리빙관과 패션관 등 2개 건물 중 리빙관 1층부터 지하 2층에 걸쳐 1400평 공간을 슈퍼마켓을 비롯해 식품관으로 단장한 것. 이는 작년 10월 리빙관 전체를 생활전문관으로 꾸민 데 이은 파격적 시도다.

타임스퀘어점 식품전문관은 과일과

채소, 수산, 정육은 물론 기존에 없던 베이커리와 카페까지 총망라했다. 정문에 들어서면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가 고객을 맞이하는 국내 유일 백화점이기도 하다. 특히 지하 1층은 1100평 규모의 맛집 거리 ‘고메스트리트’로 꾸몄다.

백화점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1층을 식품관이나 편집샵으로 꾸미는 시도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기 힘든 파격적인 도전이다. 그동안 백화점 1층은 화려한 명품 또는 향수와 화장품을 배치해 2~3층 의류 매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점포 건물 입구에서부터 고객을 맞는 화장품과 명품은 화려함과 사치품의 대명사로 백화점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장기 불황과 온라인으로의 소비 패턴 이동은 꽂박하던 백화점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게 했다.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으로 선회가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다만 속을 뜯어보면 양사가 취한 전략은 차이가 있다. 롯데의 경우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사와 백화점 영등포점을 연결하는 통로는 3층에 위치한다. 유동인구의 유입이 주로 3층으로 이뤄지다 보니 해당층이 사실상 1층인 셈이다. 주 출입구에 백화점의 얼굴인 화장품을 배치해 MZ세대를 흡수하려는 계산이다.

반면 신세계는 롯데에 비해 지하철 역사와 다소 거리가 있고, 초대형 쇼핑몰인 타임스퀘어와 연결돼 타 점포에 비해 생활장과 신선식품 매출 비중이 높다. 식품전문관은 배후 거주지인 신길뉴타운과 영등포뉴타운 등 신흥 주거지를 겨냥한 전략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백화점의 위상이 문만 열면 고객이 몰려들던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게 구성에 변화를 주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남주현 기자 jooh@



페페트병·원사 재활용 이마트 ‘리사이클 의류’

이마트가 세계자연기금(WWF) 한국 본부와 손잡고 가을, 겨울 스포츠 의류 15개 품목 판매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마트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WWF 컬래버 상품 전 품목을 행사카드 구매 시 20% 할인 판매한다. 이번 컬래버 의류 중 4개 품목이 페페트병, 버려지는 원사 등을 폐기물로 재활용한 리사이클 원사로 제작된 친환경 의류다. 심플한 디자인의 경량 패딩 베스트 ‘남/여 WWF 리사이클 에코 베스트’를 할인가 기준 각 1만 5920원에, 안/겉감이 따뜻한 보아털로 덮인 ‘남성 WWF 보아점퍼’와 ‘여성 WWF 포인트점퍼’도 할인가 기준 각 3만1920원에 선보인다.

사진제공 이마트

코로나 여파에... ‘건강’ 내세우면 흥행

롯데 ‘초유프로틴365’ 매출 100억
푸르밀 ‘프로바이오’ 200만개 판매

건강을 키워드로 내건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면역력을 비롯한 건강을 콘셉트로 한 신제품들은 기존 제품들이 형성한 진입장벽을 뚫고 밀리언셀러 반열에 오른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롯데제과 헬스원의 ‘초유프로틴365’은

100억 매출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초유프로틴365’은 성인용 단백질 제품으로 올 1월 출시했다. 초유 및 우유, 완두단백을 최고급 프랑스산으로 사용했다. 낙농 강국 프랑스의 유가공 전문업체 잉그리디아(Ingredia)에서 최고 등급의 품질을 인증받은 원료로만 사용했다.

롯데제과 헬스원 관계자는 “헬스원(건강식품 브랜드)에서 연 100억 원 이상의 히트상품이 나온 것은 ‘마테 다이어트’ 이후 10년 만”이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판매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르밀의 발효유 ‘프로바이오’는 출시 2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 개를 넘어섰다. 푸르밀 측은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 프로바이오 매출은 약 1억5000만 원으로, 월 매출 약 6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7~8월 프로바이오 월평균 매출(평균 4억 원대)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푸르밀 측은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는 환절기에 인기가 이어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푸르밀 ‘프로바이오’는 코로나19로 급증한 건강 기능성 제품 수요를 반영해 7월에 선보인 프리미엄 장 건강 발효유다. CJ제일제당의 특허 유산균 ‘CJLP243’을 담아 출시 초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푸르밀 측은 설명했다. 김해지 기자 heyji@

GS리테일 ‘마스크 선물세트’

GS리테일에서 박스포장으로 만든 KF94, KF80 마스크 20매 선물세트를 출시한다.

GS리테일이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크리넥스 마스크 추석선물세트’를 21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KF94 마스크 10매와 KF80 마스크 10매, 총 20매로 구성했으며, 각 상품은 개별 포장돼 있다. 가격은 1만9800원(장당 990원)으로 8000세트 한정 수량만 판다.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리에 서 구입이 가능하다.

GS리테일에서는 일상에서 필수 아이템



이 된 마스크가 추석 기간 정성을 담아 주고 받는 알뜰한 선물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박스 포장으로 기획해 택배 등을 통해 언택트 선물이 가능하도록 했다.

GS25에서는 18일부터 상시 990원에 판매할 수 있는 KF94 상품을 추가 개발해 국민생활안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카뱅, 상장 전에 잡자”… 장외시장으로 몰리는 뭉치돈

직장인 박○○씨(36·남)는 요즘 카카오펙크 장외주식에 잔뜩 눈독 들이고 있다. 상장되면 ‘파상’(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로 오른 뒤 상한가)은 때늦은 당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이달 초 마이너스통장으로 1억 원을 빌려 카카오펙크 공모주 청약에 쏟아 부었다. 어렵게 5주만 받았지만, 4 거래일 동안 번 돈은 20여만 원(평가차익) 남짓이다. 박씨는 “온 가족을 동원해 공모주 청약에 해봤지만, 물량은 많지 않았다. 장외 기업에 투자해 길목 지키기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펙크 등이 잇따라 대박을 터트리자 ‘주식부자’를 꿈꾸는 개미투자자들이 장외주식으로 몰리고 있다. 상장 소식만 전해져도 주가가 급

주당 가격 12만4000원… 두 달여 만에 61% 급등
시총 45조2720억… 4대 금융지주 합계보다 많아
“증권사 평가액과 5~8배 차…투자 과열조짐” 우려

등한다. 카카오펙크도 예외는 아니다.

15일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카카오펙크의 한 주당 가격은 12만4000원으로 시가총액만 45조27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7일 7만7000원 수준이던 주가(기준가)는 두 달여 만에 61%가량 급등했다.

이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국내 4대 은행사인 우리금융지주(6조1609억 원), 하나금융지주(8조5869억 원), KB금융지주(15조9462억 원), 신한금융지주(13조

7252억 원)의 합계 시총(44조4192억 원)을 넘는 수준이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6위인 셀트리온(39조9581억 원)보다 많다.

카카오펙크 주가가 뛰자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도 들쭉였다. 한국금융지주는 이달 들어서만 오늘까지 주가가 33.16% 올랐고 이날 장중 8만9100원을 터치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예스24도 같은 기간 88.88% 급등했고 이날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나란히 신고가를 다시 썼다.

한국금융지주는 손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함께 카카오펙크 지분 33.53%를 들고 있는 2대 주주며, 예스24 역시 카카오펙크 지분 1.97%를 보유하고 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펙크의 지분이 비유동성 자산임을 고려해 50%의 할인율을 적용해도, 카카오펙크 주식의 가치는 한국금융지주 1주당 2만5000원을 웃돌 것으로 본다”면서 “카카오펙크의 상장 기대감이 커질수록 한국금융지주의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45조 원을 웃도는 시가총액에 대해 과열이라는 지적이 많다. SK증권과 삼성증권이 본 카카오펙크의 기업 가치는 각각 8조9000억 원, 5조4000억~8조6000억 원이다. 무려 5~8배가량 차이가 난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뱅크는 플랫폼으로서 지닌 높은 잠재력으로 시장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카카오펙크의 상장 가치와 관련해 가장 큰 관건은 수수료 수익이 될 것인데 대출 성장에 따른 이자 이익 증가는 은행업의 특성상 많은 양의 자본을 요구하는 만큼 한계가 명확하고 저금리 기조하에서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총자산이익률(ROA)의 개선여력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비상장 장외주식 투자 열기는 물리만 증시 투자와 무관치 않다. 한국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 홍콩 등 해외 증시에서도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밀려들면서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투자자들은 장외주식 투자로 상장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바이오, 영업익 688% ‘껍충’… 배터리 -67% ‘후진’

‘BBIG 뉴딜’ 섹터 2Q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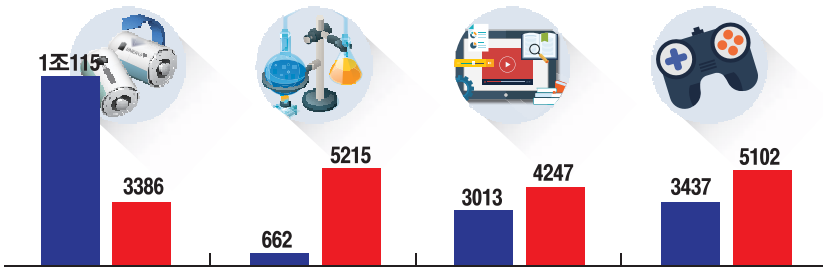
게임 48%·인터넷 41% 증가
바이오 ‘K방역’ 선도기업 강세
‘씨젠’ 46억→1690억 원 급증

‘한국판 뉴딜정책’의 비전을 담고 있는 ‘K-BBIG 뉴딜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성적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투데이가 2분기 ‘KRX BBIG K-뉴딜지수’ 구성 종목(40곳·연결기준, 두산솔루스는 인적분할 전 두산 소재사업부 실적 기준)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 섹터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같은기간 보다 687.7%로 가장 컸다. 게임(이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 증가율 48.4%), 인터넷(41%), 배터리(-66.5%) 등이 뒤를 이었다.

바이오 섹터에선 진단키트 수출 등 ‘K방역’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씨젠은 작년 2분기 46억 원에 불과했던 올해 2분기 1690억 원으로 끌어올리면서 무려 3540%

KRX BBIG-K 뉴딜지수 섹터별 2분기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 원)



※ 40곳·연결 기준, 두산솔루스는 2019년 인적분할 전 두산 소재사업부 실적 기준.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급증했다. 바이오 섹터 영업이익의 증가분의 3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씨젠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며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영업 지렛대 효과도 지속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8.4% 뛰면서 바이오 강세에 힘을 보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2분기 154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올 2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811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781억 원에서 4배 가까이 뛴 3077억 원이다. 올

해 회사는 미국 비어(4400억 원), 영국 GSK(2800억 원) 등 잇따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리면서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배터리 섹터(10개 기업) 2분기 영업실적이 뒷걸음질했다. 439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SK이노베이션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3% 증가했다.

게임 섹터에선 넷마블(146.1%), 네오위즈(93.4%) 등의 영업이익이 좋아졌다. 인터넷 섹터에선 네이버(79.7%), 카카오(141.7%) 등이 좋은 성적을 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코스피, 外人 매수세에 연고점 경신

15.67P 오른 2443.58

코스닥은 900선 ‘바짝’

한때 1400대까지 곤두박질쳤던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힘으로 버텼고, 외국인 투자자들 덕에 다시 일어났다.

1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5.67포인트(0.65%) 오른 2443.58에 장을 마쳤다. 4일 연속 상승으로, 지난달 13일 연고점(2437.53)을 한 달여 만에 갈아치웠다. 2018년 6월 12일(2468.83) 이후 27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되면서 코스피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LG화학, 카카오, 삼성SDI 등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등이다.

이제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면서 시총 상위 업종 대부분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지난 8월 중순 코로나19 3차 팬데믹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발발하며 투자심리가 악화됐고, 특히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돈을 빼면서 코스피는 그동안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시장에서는 워낙에 풍부한 유동성이 일제히 증시를 향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힘으로 증시는 당분간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코스닥은 전날보다 5.29포인트(0.59%) 상승한 899.46으로 마감하면서 900선에 바짝 다가갔다. 2018년 4월 17일(901.22) 이후 최고점이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효성캐피탈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에스티리더스PE’

주요성은 15일 효성캐피탈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PE는 세마을금고와 컨소시엄을 맺고 입찰에 참여했다. 차우선협상자로는 화이트웨이그룹(WWG)을 선정했다.

효성은 지난달 28일 최종입찰 이후 입찰자별 주요 제안 조건들에 대해서 2주간의

내부 검토를 통해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 효성 관계자는 “입찰 가격, 자금조달 계획, 향후 경영계획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말했다.

효성이 보유한 효성캐피탈의 주식 884만 154주(지분율 97.5%)가 거래 대상이다. 가격대는 4000억 원 초반으로 알려졌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삼성그룹주펀드, 수익률 저조해도 인기 끄는 이유는

최근 3개월간 610억 자금 유입

기타그룹주펀드는 186억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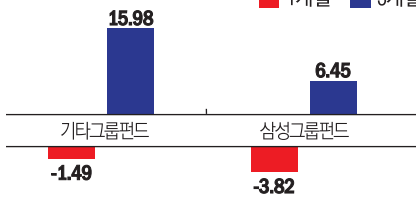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주가 ‘6만원대 탈환’ 호재 작용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주식을 담은 삼성그룹주펀드에 최근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설정된 24개 삼성그룹주펀드에 최근 3개월간 61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하는 44개 테마 펀드 중 기업공개(IPO) 열풍으로 주목받는 공모주펀드(1조6258억 원)와 코스닥벤처펀드(4771억 원) 등에 이어 8번째로 가장 많은 금액이 유입된 것이다. 특히 LG와 현대차그룹 등 다른 대기업에 투자하는 기타그룹주펀드에서 186억 원이 유출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그룹주 펀드 평균 수익률 추이 (단위: %, 14일 기준)



주요 테마펀드 최근 3개월 자금 유입액 (단위: 억 원, 14일 기준)

공모주펀드	16,258	SRI펀드	613
코스닥벤처펀드	4,771	삼성그룹주펀드	610
라이프사이클	1,735	4차산업	412
금펀드	1,293	농산물펀드	212
ETF(해외주식)	1,186	녹색성장펀드	194
금융펀드(국내)	946		

※ 출처: 에프엔가이드

하지만 최근 삼성그룹주펀드의 최근 수익률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6.45%로, 자금 유출 몸살을 앓고 있는 기타그룹주펀드 수익률(15.98%)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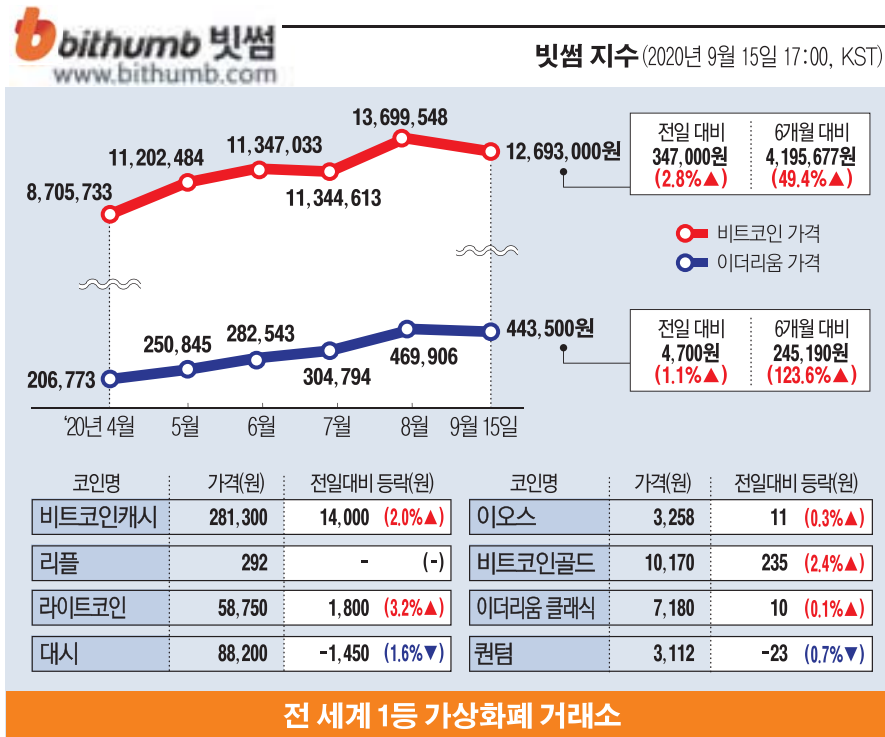
이처럼 최근 다소 저조한 수익률에도 펀드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삼성전자를 비

롯해 각 업종을 대표하는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자금 유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룹주펀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편입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 주가가 6만 원대를 회복했다는 점이 펀드 수익률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삼성그룹주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8.56%)을 기록한 펀드는 한국투자삼성그룹리딩플러스증권투자신탁1(주식)(A)이다. 이 펀드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24.51%)를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뒤이어 삼성SDI(4.37%)와 삼성바이오로직스(4.33%)를 담고 있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사업부문 중 이익 기여도가 큰 메모리 업황은 저점을 지나고 있고, IM 부문도 화웨이 제재와 중국-인도 관계 악화에 따른 반사이익과 원가절감 효과로 3분기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6·17대책서 규제 피하자 수요 몰려...커지는 ‘풍선효과’ 김포·천안 ‘신고가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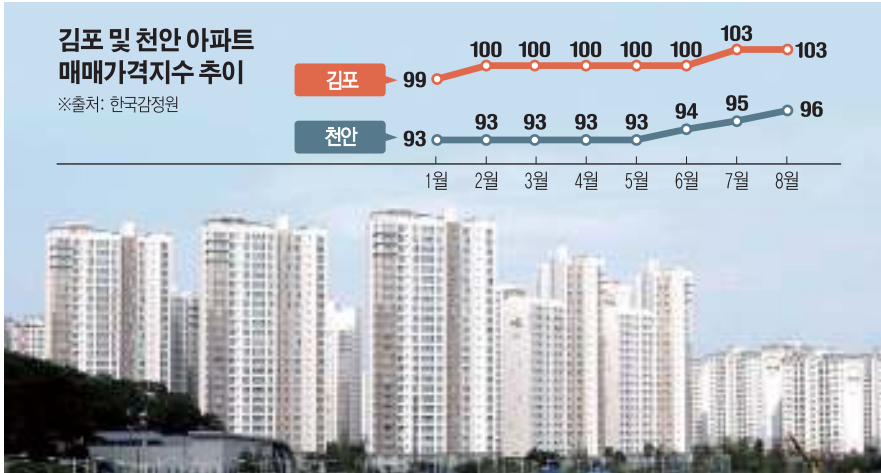
경기 김포시와 충남 천안시.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요즘 주택시장이 너무 ‘핫’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경중 뛰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안정권에 접어든 것과는 판판이다. 광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김포와 천안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권까지 육권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으로,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아파트실거래가)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반동안(7월 18일~9월 4일) 경기도에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김포시로 1665건이 거래됐다. 같은 기간의 정부(679건)·남양주(601건)·화성(550건)·파주시(543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아파트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풍무 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59㎡형은 지난달 27일 5억6000만 원(16층)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5억7300만 원(5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불과 3달 전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는 5억 원 초반에 살 수 있었다. 현재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는 6억 원(25층)까지 오른 상황이다.

풍무동 P공인 관계자는 “이곳은 비규제 지역으로 서울보다 대출을 받기도 쉽고 집값도 더 싸다 보니 서울 강서권에 직장을 둔 젊은층이 많이 찾는다”며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동 ‘한강 센트럴하이’ 전용 84㎡형에선 지난 달에만 5건의 신고가 거래 사례가 나왔다. 이 아파트 최고 거래가는 4억5000만 원(21층)으로 현재 시세는 5억~5억3000만 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김포 아파트 매매, 경기서 최대 ‘패닉바잉’ 30~40대 60% 사들여
투자자 몰리며 집값도 크게 올라
천안선 호가 13억 아파트 등장
국토부 “이상 징후 발견 뎀 조치”

김포 집값이 상승세를 탄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겹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김포 집값은 꽤 많이 올랐다. 이후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예상과 달리 6·17 대책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남으면서 6월 마지막 주에는 주간 상승률 1.88%까지 치솟기도 했다.

집값이 잠시 주춤한 것은 정부가 7·10 대책 등 더 강도가 세진 규제책을 내놓으면서였다. 규제의 역효과로 ‘뚝뚝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서울로 몰리면서 김포 주택시장은 일시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후 상황은 다시 역전됐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패닉 바잉’ (공포에 의한 구매)에 빠진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김포 쪽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김포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연령대는 30~40대였다. 7

월 김포 아파트 총 매수 건수(2310건) 중 40대가 7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676건)이었다.

지방에선 비규제 지역인 천안의 집값 상승세가 예상외로 빠르다. 천안 아파트값은 6·17 대책 이후 2.49%나 올랐다. 이곳에선 호가가 13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도 등장했다. 불당동 ‘불당 지웰더샵’ 전용 112㎡형으로 지난달 22일 12억95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썼다. 현재 이 아파트는 13억 원을 호가한다. 같은 단지 전용 84㎡형은 시세가 8억 원 선까지 올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규제 틈새만 있으면 그 지역 주택시장으로 돈이 흘러들 수밖에 없다”이라며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규제 틈새가 있으면서도 교통여건 개선 등의 호재를 안고 있는 곳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선 정부가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는 추가 대책을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 예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김포나 천안 등 집값이 오는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건설사들 속속 ‘부산행’

대연8·우동1·반여3구역 등 ‘대어급’ 수주전 치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부산에선 이달부터 대규모 정비사업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조합은 15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다. 수주전은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대연8구역 재개발은 남구 대연동 일대에 아파트 353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8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운대구 우동1구역 재건축조합도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동1구역 재건축은 해운대구 우동 일원의 삼호가든아파트를 1476가구 규모로 짓는 것으로 수주를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물밑작업이 치열하다.

대연8구역과 함께 올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문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GS건설과 시공사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현1구역 재개발은 부산 남구 문현동 일원에 아파트 2758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 원에 이른다.

이 밖에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대구

부산 정비사업 수주전 현황

(단위 : 가구)

사업장명	단지규모	참여 건설사
대연8구역	3530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문현1구역	2758	GS건설
재송2구역	938	대림산업
우동1구역	1476	입찰 전
반여3구역	1515	입찰 전
수안1구역	707	입찰 전

모 재건축 사업장으로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3060가구)과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3구역(1515가구) 등이 있다.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이자 랜드마크로 꼽히는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은 GS건설이 일찌감치 시공사로 낙점됐다. 반여3구역 재건축은 올 하반기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운대구 재송2구역은 수의계약을 통해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할 전망이다.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에 아파트 938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동래구 수안1구역 재건축조합은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수안동 일대에 공동주택 707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600억 원 규모다.

이정필 기자 roman@

내주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다음 주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행위가 사실상 막힌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구역, 광역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전매 규제를 강화한 건 청약 당

첨 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되파는 투기성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민간택지 아파트는 청약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주택을 사고팔 수 있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매 제한이 2년 안팎으로 늘어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상 아파트가 완공된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가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프리미엄(웃돈)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 과거에도 2016년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자 프리미엄이 치솟았다.

박종화 기자 pbell@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남다른 능력
to
색다른 내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새로운 얼굴,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귀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檢 ‘추미애 아들 의혹’ 국방부 압색

감사관·민원실 등 자료 확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스(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23일간 1·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가 군에 직접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 측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군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 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기록은 서 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 A 상사가 2017년 4월 12일과 6월 15일 해당 시스템에 작성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메인 서버에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용 기자 deep@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민원실 등에서 압수수색 후 확보한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 피해액 1.2조 전액 동결

법원, 추정보전 명령 檢, 재산 가압류 진행

검찰 수사로 지금까지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피해액 1조 2000억 원이 모두 동결됐다. 법원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재현(50) 대표와 2대 주주 이모(45) 씨에게 추가로 추정보전 명령을 내렸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과 이번 달 1일 김 대표와 이 씨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추정보전 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게 6894억 원의 추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6894억 원은 검찰이 김 대표와 이 씨를 기소하기 전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이 신고한 피해액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해당 금액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은 ‘받아야

할 돈’을 한정한 것이지 실제로 확보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찾아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을) 찾는 대로 계속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물건이 대상인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7월 김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모두 1조2000억 원이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검찰이 김 대표를 추가 기소해 피해액이 총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추징보전 청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용 기자 deep@

정경심 母子, 최강욱 재판서 증언 거부

조국 이어 ‘형소법 148조’ 주장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 씨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증인 신문은 진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증인에게 불리한 절차만은 아니고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정 교수는 130건에 달하는 검찰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변 반복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김종용 기자 deep@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대법 양형위 권고 형량 높여 상습성·법행 수법따라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선고 권고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다수범) 최대 29년3개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상습가중 규정을 뒤 상습범은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영리 등 목적 판매 범죄 다수범은 최대 27년, 배포 범죄와 알선 범죄 다수범은 최대 18년, 구입 범죄 다수범은 최대 6년 9

개월 선고를 권고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는 8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는 5개를 제시했다.

양형위는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

반면 피해자의 자살, 자살 시도, 가정 파탄,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뒤 가중된 처벌을 권고했다.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면 제작 범죄는 최대 19년 6개월, 판매 범죄 18년, 배포·알선 12년, 구입 4년 6개월 등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촬영 다수범은 6년 9개월, 반포 다수범 9년, 영리 목적 반포 다수범 18년, 소지 다수범 4년 6개월을 최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전문적인 장비, 기술을 사용해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도 포함했다.

양형위는 의견 조화, 공정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서울시 ‘성차별 특위’ 대책 발표 미뤄지나

범위·시기 놓고 위원간 이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관행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가 대책 발표 범위와 시기를 두고 위원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달 말 대책을 내놓겠다던 애초 계획보다 발표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직원들의 성비위 근절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특위를 출범시켰다. 외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달 말까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총 7개 제도개선 사항을 자문한다.

특위는 대책 중 하나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와 피해자 중심의 처리절차를 재정비하고, 동료의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인지한 직원의 직급별 대응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대로 이달 내 핵심 대책이 공개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발표 범위와 시기,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 아예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애

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A 위원은 “대책을 발표하는 게 의미가 없고 지속해서 문제를 개선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의견이 있다”며 “누가,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는 물론 서울시민에게 성비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계획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특위가 무엇을 검토하고 뭘 점검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최소한의 가이드나 정보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한국맥도날드 ‘가맹금 관리 위반’ 벌금형

금융기관 예치 않고 직접 수령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 행위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 약 2억 원을 직접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맹사업 희망자 8명에게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김종용 기자 deep@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제92회 아카데미 작품상
- 달변 -

제72회 관영화제 순금종려상
- 주세요 -

전미박스오피수 1위
- 앓음 좋겠다 -

천만 관객 돌파
- 가 폼아예요 -

늘 소비할 때마다
늘 소비 관리하라

신한 PayFAN 이 다시 쓰는
궁중 소비 실록

소비마마



▶ 소비마마 스토리는 신한카드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소비 · 자산 관리부터 간편결제, 원의 서비스까지
마이데이터 시대의 종합 금융 플랫폼

Lead by 신한카드

“작물 영상 데이터 통해 우수 품종·유전자 선별”

김경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연구관

‘표현체 연구동’ 건립 위해 4년 동안 농업 선진국 시설 견학 경험에 의존하던 전통농업 첨단기술 접목 디지털 육종으로

“2014년에는 국내에 작물표현체 시설이 없어 영국, 네덜란드 등 국외 시설을 견학 하면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김경환(사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연구관은 작물표현체 연구동이 건립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만은 않았다고 회상했다.

표현체 기술이란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된 작물 이미지로 키, 잎 면적 등 작물의 형태적 특징을 수치화·객관화해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해 우수한 자원 선발, 건조 등 스트레스의 양적 평가, 병 진단 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벼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어린 벼의 키, 생육면적 등의 형질과 다 자란 벼를 비교해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물이 다 크기 전에 미리 우수한 품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다.

농진청은 2017년 국내 최초로 작물표현체 연구동을 건립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김 연구관은 “수년간 준비한 끝에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후 우리 실정에 맞게 장비

를 제어, 운영, 관리하는 방법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콩, 벼 등 작물을 이용한 분석방법 확립 시에도 실측과 영상 분석값 간의 비교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의 작물표현체 연구동은 하루에 최대 2812개체를 가시광, 근적외선, 형광 등 6종의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 연 150만 장, 4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연구시설이다.

표현체 연구동에서는 온실에서 재배된 작물이 컨베이어벨트로 영상장치에 있는 이미지 분석실로 이동하고, 다양한 영상장비로 이미지를 촬영해 DB에 저장한다. 연속적인 촬영 과정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정보는 작물생육시기별 크기, 생체량, 수량 등 농업형질을 디지털화, 객관화해 우수한 품종과 유전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여름 최장의 장마처럼 기후변화가 급격해지는 상황에서 우수 품종을 빠른 시간 안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육묘 단계에서부터 우수한 개체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전통 농업에서 경험에 의존하던 육종을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육종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김 연구관은 “전통농업기술과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ICT), 자동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표현체 연구를 통해 육종 기간을 단축하고, 검정형질 수도 5배까지 늘렸다”며 “병해충 예방 등 표현체 기반 진단 기술을 응용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기술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 지난해 표현체 연구동에서 분석한 개체 수는 총 2205개. 만약 이를 외국에 분석 의뢰했다면 1개체당 65만 원, 총 14억3000만 원의 경비가 들지만, 국내 분석이 가능해 개체당 15만 원, 3억3000만 원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표현체 기술의 발달은 이제는 익숙해진 유전자분석 기술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 연구관은 “유전자분석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유전체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표현형 정보는 측정·분석기술의 병목현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표현체·유전체 통합분석이 가능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생산량, 재해저항성, 병저항성 등의 농업형질과의 연관성을 해석할 수 있고 우수한 유전자, 품종, 유전자원도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목표는 더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김 연구관은 “연구동 건립 이후 공학, 컴퓨터 전공자를 채용하여 장비운영, 작물형질 분석 등 본격적인 표현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표현체 연구는 농업, 프로그램, 기계 등 다학제적 융복합이 필요한 분야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랩(open lab) 개념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업을 이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임해중 前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가스안전공사 신입 사장에 내정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입 사장에 임해중(62)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장이 내정됐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임 선임 사장 내정자는 17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3년 9월 16일까지 3년이다.

충북 진천 출신인 그는 한양대 법학과, 영국 서섹스대 대학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기획예산담당관,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KDB산업은행 감사, 더불어민주당 충북증평군·진천군·음성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임 내정자는 30여 년간 공공 분야 정책 수립과 공공기관 운영 등 관련 업무에 근무해온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쿠팡, 김기령 前 머서코리아 대표
인사 전문가조직 부사장으로 영입

쿠팡은 한국 최고의 인사 전략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김기령 전 머서코리아대표를 쿠팡의 HR CoE(인사 전문가조직)를 이끌 신입 부



사장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에서 교육심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 부사장은 국내 대기업 인사 총괄부터 글로벌 HR컨설팅 기업 대표까지 HR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인사전략 전문가다. 김 부사장은 쿠팡 입사 전에는 풀무원 식품 인사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적자원관리(HRM), 인적자원개발(HRD), 노사관계(ER), 다양성과 포용(D&I)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했다. 이에 앞서 머서코리아와 헤이그룹코리아, 에이온코리아, 타워스왓슨코리아 등 한국에 진출한 4대 글로벌 HR컨설팅 기업의 한국 대표를 모두 역임하기도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인사

◆한국전력 ◇본사 처(실)장 △한전공대설립단장 정재천 △해상풍력사업단장 김종화 △디지털변환처장 김태용 ◇1차 사업소장 △부산울산본부장 한상규

◆스포츠서울 △상무이사 겸 경영본부장 이봉춘 △이사대우 겸 편집국장 고진현 △편집국 편집부장 이경은 △스포츠부장 이환범 △영상제작부장 배우근 △컬처엔라이프부장 김효원 △디지털콘텐츠부장 박효실 △마케팅본부 마케팅국장 염진근 △마케팅국 콘텐츠사업부장 윤종석 △경영본부 경영지원부장 김성배 △마케팅국 온라인마케팅부장 김종철 △경영본부 재무팀장 이기엽

부음

▲박기분 씨 별세, 노형기(한강랜드마크PFV 대표이사) 씨 모친상 = 15일,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206호, 발인 17일 오전 7시, 053-200-6464

▲이종석(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씨 별세, 한동훈 씨 남편상, 이관(에어퍼스트 부사장)·현(서원양행 기획실장)·연희 씨 부친상, 김복영(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씨 장인상 = 1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2-2227-7591

삼성전자, 14년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

삼성전자는 우수 기능인력 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14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은 평소 “제조업의 힘은 현장이며, 현장의 경쟁력은 기능 인력”이라는 소신으로 기능 중시 경영을 주도해 왔다.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전라북도 전북하이텍고와 군산기계공고 등 7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모바일로봇,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캐드(CAD) 등 50개 직종에 전국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번에는 내년 대회부터 신설 검토 중인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용 드론제어 등 3개 직종 시연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컴퓨팅 직종은 지난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신설됐다.

대회가 끝나는 21일 시상식에서는 기계·IT·기타 부문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선수들에게 ‘삼성전자 후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KPMG 자문교수단 3명 위촉



삼성KPMG(회장 김교태·맨 오른쪽)가 14일 역삼동 삼성KPMG 본사에서 ‘제6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6기 자문교수단에는 송재용(왼쪽부터)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전영순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자문 교수단은 내년 8월까지 임기 1년간 삼성KPMG ACI 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을 맡게 된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헌재 ‘표현의 자유’ 판결, 인터넷산업 성장에 큰 기여”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인터넷기업협회 20돌 인터뷰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 됐듯 게임도 보편적 문화로 자리잡을 것”

정진수(사진) 엔씨소프트 수석 부사장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게임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이 개인의 생활과 문화의 일부가 돼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은 것처럼 게임 역시 보편적인 하나의 문화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수석 부사장은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출범 20주년 기념 인터뷰 영상에서 “아직은 ‘게임을 왜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게임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10~20년 후 인터넷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인터넷 산업은 다른 산업에서 10~20년 걸리는 것이 6개월에서 1년이면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그렇수록 인터넷이 서로를 연결해주는 도구가 돼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꼽았다.

서경배과학재단 선정 ‘신진과학자’ 노성훈·이주현·조원기 교수

서경배과학재단은 2020년 신진과학자로 노성훈(왼쪽 사진부터)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주현 영국 케임브리지대 줄기세포연구소 교수, 조원기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성훈 교수는 초저온 전자현미경을 기반으로 세포 및 분자 이미징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세포 노화와 질병 발생 기전 연구를 제안했다. 이주현 교수는 폐

섬유화증 환자로부터 만들어낸 폐 오가노이드(유사 장기) 모델을 이용해 만성 폐질환으로 손상된 폐 재생 복구 기작(생물의 생리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기본 원리) 연구를, 조원기 교수는 실시간 단일 세포 이미징을 통한 4차원 유전자 발현 조절 연구를 제안했다.

서경배과학재단은 아모레퍼시픽그룹서경배 회장이 2016년 사재 3000억 원을 출

9월 ‘A-벤처스’ 천연성분 모발관리 ‘비셀’ 우봉현 대표

농산물에서 소재 추출...탈모 방지·모발 흑화 효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모발관리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비셀’ (대표 우봉현·사진)을 이달의 ‘A-벤처스’로 선정했다. A-벤처스는 농식품 벤처(Agri Venture)와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어벤처스’라는 의미로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가 선정하고 있다.

비셀은 천연소재 추출 기술과 자체 노화우로 ‘케라틴 워터 헤어팩’을 개발, 단기간에 사업화에 성공했다. 농산물을 단순 가공이 아닌 미용(모발 관리) 분야에 접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창업 1년 만에 매출 6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모발과 두피의



잔류독소를 배출하고, 모발을 검게 만드는 성분 추출 기술은 이전을 받았고, 여기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머리탈과 피부, 손톱 등을 형성하는 단백질 추출 기술을 접목해 완성도를 높였다. 또 치열한 모발 관리 제품 시장에서 대형 점포에 입점하는 대신 미용실 사업자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선택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유럽은 지금



안 병 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영국은 EU에서 농산물과 공산품의 절반이 수입된다. 기껏해야 재고가 2주 정도이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농산물 구입이 어려워지고 학교 급식이 중단될 수 있다. 노딜을 가정한 영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영국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EU 시장을 대체할 다른 시장 개척은 아무리 일러야 수년 걸릴 것이다.

“노딜을 위한 융단폭격이다.” 영국 정부가 9일 유럽연합(EU)과 을 초 체결한 탈퇴조약을 위반하는 법안을 제시하자 EU의 한 고위관리가 이처럼 발언했다. 한동안 뜸했던,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블랙리스트’ 우려가 다시 커졌다. 다음 달 1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회원국 수반들의 정상회담(유럽 이사회) 전까지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노딜 가능성은 커진다. 지난주 런던에서 열렸던 영국과 EU 간의 8차 신관계 협상이 아무런 진전 없이 종결됐다. 논란의 핵심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관련 이슈다. 지난 1월 비준된 탈퇴조약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체제를 따른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통제 재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영국산 제품이 북아일랜드에서 판매될 경우 EU의 국가보조금 규정 적용을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폐기하려 한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수십 년간 노동당 정권을 지지해온 잉글랜드 중북부 유권자들이 보수당을 지지했고, 이 때문에 보리스 존슨은 안정적 과반을 얻어 집권했다. 그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런

던에서 버밍엄, 맨체스터 등 주요 도시에 이르는 1000억 파운드(약 160조 원)가 더 드는 대규모 고속철도 공사를 시작했다. 영국은 또 각종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려 한다. 코로나19가 야기한 불황 극복에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EU는 영국의 이런 신규 투자를 심하게 불허할 수 있다. 잉글랜드 등에서 제조된 제품이 북아일랜드에서 언제든지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경제에 국한된 게 아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영국이 탈퇴 조약을 위반할 경우 미국과 체결할 자유무역협정(FTA)은 비준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에서 FTA를 거부할 경우 이 협정은 발효되지 못한다. 30년간의 유혈분쟁을 종결한 북아일랜드평화협정은 미국 민주당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조지 미첼 상원의원을 북아일랜드 특사로 임명했고, 그는 분쟁 당사자들을 중재해 1998년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미국은 EU와 함께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보장해왔다. EU는 이 법안이 북아일랜드 평화를 교란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철회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영국은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협상용으로 이 카드를 제시했지만 그나마 협상력이 크게 떨어진다. 노딜이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려면 영국에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노딜이 발생하면 당장 EU와의 교역에서 통관 절차가 도입되기 때문에 관세 지도사 수만 명이 필요하다. 정부 추산으로 5만여 명. 그러나 아직 관세 지도사 양성은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EU 회원국으로부터 영국에 들어오는 제품의 3분의 1은 도버항을 경유한다.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를 탈퇴했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이행기(과도기)다. 아무런 통관 없이 영국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것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통관에 필요한 수십종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무사 통관하던 화물 트럭의 통관 서류 제출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통관 처리에 필요한 정보통신 시스템도 준비가 안 됐다. EU에서 농산물과 공산품의 절반이 수입된다. 기껏해야 재고가 2주 정도이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농산물 구입이 어려워지고 학교 급식이 중단될 수 있다. 노딜을 가정한 영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존슨 정부가 노딜 카드를 다시 꺼내는 것을 일부에서는 코로나 19 실책 덮기로 본다.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의 샘 로우 연구원은 “일부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가 노딜보다 훨씬 클 것으로 여기고 이런 카드를 꺼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라고 전망한다. 영국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EU 시장을 대체할 다른 시장 개척은 아무리 일러야 수년 걸릴 것이다. 이동 금지가 풀리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노딜에 따른 경기침체는 이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유거브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블랙리스트를 지지한 국민투표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답보다 최소 8% 정도 높다. 그렇지만 국민투표에서 나온 민의를 지켜야 한다고 유권자들은 생각한다. 문제는 경제에 큰 손실이 가는 탈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에 포퓰리스트 존슨 총리는 하루빨리 EU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 이제 노딜 브렉시트 여부는 한두 달 안에 판가름이 난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안승호의
오! 마이마켓

승실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

코로나19 사태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바로 장사나 사업을 지금 접을까 아니면 최대한 버텨 볼까 하는 고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피 같은 은퇴자금 혹은 한 톨 두 톨 아껴서 모은 목돈이 날아갈 판이니 그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최근 몇 개 기관에서 코로나 사태가 소상공인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의 영향은 업종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집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 건강이나 청결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와의 연관성, 구매의 시급성 등이다. 우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식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음식 배달,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조리된 음식을 판매

하는 편의점, 온라인 쇼핑 등과 관련된 업종은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둘째, 건강이나 청결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예를 들어 청소기, 공기청정기, 세탁소 등의 매출은 늘어나지만 3밀(밀집, 밀접, 밀폐)의 상황을 피하지 못하는 영화관, PC방, 노래방,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점과 주점 등의 매출은 줄었다. 끝으로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발생하는 소비 욕구는 구매의 시급성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문화, 예술 행사, 골동품 가게, 꽃가게 등은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영향의 영역에 있는 점주들은 적어도 영업방식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방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가능하도록 음식이나 상품의 포장을 개발하며,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는 것보다는 일인용 상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칸막이 설치하는 물론 공간적 여유를 두고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방형 매장으로 바꾸며,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은 사태가 진정된 후일 것이다. 언제 사태가 종결될지 가늠할 수 없지만,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소비자 구매 행동의 일시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습관으로 고착화되고, 그 결과로 원상회복이 아닌 뉴노멀이 도래하는 상황 말이다. 코로나 사태 동안 급속히 증가한 온라인 구매자들은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온라인과 같은 편의성과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물리적 소매점 방문을 줄일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분석이다. 온라인으로 간단한 구매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외출을 위해서는 특별한 동기가 필요하다. 한 번의 외출로 쇼핑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도 해결하는 경향이 늘 것이므로 좋은 상권에 진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아울러 식품 취급 과정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높아진 안전성 요구

에 맞추어 필요한 시설과 영업방식의 도입은 초기 투자 규모의 증가와 운영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 모든 일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미뤄왔던, 기업의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방향 전환의 계기로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에 대해 신경을 쓰는 만큼 폐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창업 컨설턴트보다 폐업 컨설턴트가 더 필요한 시기이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각종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폐업을 지원하는 안정자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진한 사업을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정부가 대신 맡아주고 상황이 좋아지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환수한다든가 정당한 잔여가치를 인정해 인수하는 펀드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지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라는 것이 정부에 대한 소상공인의 청원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리관유(李光耀) 명언
“인기에 신경 쓴다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다.”
26년간 총리로 재직하며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로 만든 정치가. 냉철한 현실감과 능수능란한 정치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는 인구 300만의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작은 용’으로 일으켜 세웠다. 그는 오늘날 출생했다. 1923~2015.
☆ 고사성어 / 좌예해분(挫銳解紛)
날카로움은 남에게 상처 주기 쉽고, 머릿속의 어지러움은 자신과 남에게 혼란을 주므로, 날카로움은 무디게 하고 어지러움은 명쾌하게 정리하라는 말. “날카로움을 꺾고 엉킴을 풀어야 한다[挫其銳 解其紛].” 출전 도덕경(道德經) 56장.
☆ 시사상식 / 퇴존생
‘퇴사’와 ‘취업준비생’이 합쳐진 역설적 신조어.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려고 퇴사를 마음먹고 천천히 취업을 준비하는 직장인을 말한다. 요즘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이 46.1%라는 통계도 있어 트렌드로 굳어지고 있다.
☆ 고운 우리말 / 거지주머니
여물지 못한 채로 달린 열매의 껍질. 냉해·장마·태풍 삼재(三災)를 겪은 열매를 보는 농부들의 역장은 무너진다.

☆ 유머 / 제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일
국회의원 일행이 정신병원을 위문차 방문했다. 병원장의 안내로 의원들이 병실에 들어서자 환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원님들, 만세!”라고 외치며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멍하니 다른 곳을 쳐다보는 한 환자가 있었다. 중진 의원이 궁금해 병원장에게 “저 환자는 왜 우릴 환영하지 않나요?”라고 묻자 병원장의 대답. “저 환자는 오늘 아침 제정신이 돌아왔거든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 주 혜
산업부/winjh@

수고했어, 오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심화하면서 항공업계 종사자 수는 줄었다. 항공사 6곳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총직원 수는 3만6566명으로, 지난해 말 3만7230명보다 664명 감소했다. 이 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달에 이스타항공은 605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통보했다.

항공업계의 위기를 나타내는 각종 숫자와 분석이 쏟아진다. 통계는 때로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잊기 쉽다.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실직하게 된 친구를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지 묻는 글이 올라온다. 어떤 이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과 목표를 잃었다”고 한탄한다. 누군가는 “휴직 기간이 길어지지만 희망을 갖자”고 동료들을 독려한다. 항공업계 M&A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다. 영화보다 잔인하고 고달픈 상황에 부딪친, 살아있는 사람을 잊고 있었다.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정책적 지원, 시장의 구조조정을 말하지만, 오늘날 큰 옥상달빛의 노래 ‘수고했어 오늘도’ 가사를 빌려 응원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 네 부모를 원망해’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됐다. ‘조국 사태’도 결국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최근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다. 기성세대가 수십 년간 ‘부모 찬스’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간 것과는 그 결이 다르다.

우리 사회가 어느 틈인가 공정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다양성과 전문성·창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걷어내면서 출생이 곧 신분을 결정하는 ‘불평등 시대’로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 구매 시 ‘부모 찬스’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전문직 고소득자가 되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 집 장만은 꿈도 꾸지 못한다. 심지어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도 돈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푸념이 나온다. 1970·80년대 신문지면에 자주 보도됐던 광부의 아들, 구두닦이의 딸 사법고시 합격 소식은 90년 후반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이젠 사법고시 폐지로 들을 수도 없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저소득층 장학제도가 있지만 로스쿨 특혜 입학 의혹만 뉴스로 나오는 세상이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교육·취업·병역만큼은 불공정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역린’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2009년

데스크칼럼

신 동 민

정치경제부장



8.0%에서 지난해 8.9%로 10년 만에 0.9%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2009년과 비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순위가 15계단이 밀려난 20위다.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0.5%로 10년 사이 4.4%포인트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3일 통계청은 통계 작성 후 역대 최대였던 지난달 구직단념자 68만2000명 중 절반이 20, 30대 청년층이라고 밝힌 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서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을 보여준다. 청년 실업은 한번 사회에서 낙오되면 평생 낙오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린 1999년 외환위기 때 ‘IMF 세대’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코로나 세대’가 생기면서 이들 세대에겐 불공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존 세대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부탁이나 양해는 ‘코로나 세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다는 뜻이다.

최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추 장관이나 더불어민주당

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은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번 추 장관의 청탁 의혹 사건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아니다. ‘엄마 찬스’라는 불공정이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된다는 점이다. 이번 의혹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군 휴가연장, 카톡으로 가능하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의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고 한 발언이나, 황희 의원의 당직사병(최초 제보자) 실명 공개와 ‘단독법’ 표현은 민주당의 현실 인식 부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추 장관이나 민주당은 왜 국민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실망하는지,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큰지 되짚을 필요가 있다. 불법이 아니면 모든 게 용서되던 과거 기성세대 관행은 이제 역사적 유물로 퇴적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측 주장대로 ‘단순 문의’라면 왜 검찰 수사가 8개월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지 국민은 의문을 품고 있다. 공정에 대한 검찰 신뢰가 의심받는 이상 이번 수사는 야권의 주장대로 특별수사팀 등 별도의 관련 수사기구가 조사하는 것이 맞다. 차후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추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이런 결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lawsdm@

유현희의 뉴스 카트



유통바이오부 부장대우

20년전 영화 떠올리는 신용정보법 논란

의 확산을 막고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측면만 부각돼 시행했으나, 결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이법을 제외한 연락처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한 것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온라인쇼핑업체가 반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흠어진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협회 회원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이용고객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해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협회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선결돼야 할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4일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협회 회원사들이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에 주문내역 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앞서 10일 온라인쇼핑물 관계자들을 불러 주문내역정보 제공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주문내역 포함에 대해 협회 회원사들은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해를 이유로 반발하며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항의 삭제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협회는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주문내역을 포함했다”며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기준에 주문내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이냐”고 되물었다. 주문내역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만큼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외려 데이터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문내역이 공개된다면 어떤 제품을 자주 구매하는지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유추할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등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치적인 성향과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드러날 수도 있다. 협회는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항공권을 결제한 내역부터 성인용품이나 요실금팬티, 임신 관련 용품 구매 내역 등이 낱알이 드러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에 동의할 소비자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의 주문내역 공개 요구에 맞서 협회가 영화 ‘에너지 미 오브 스테이트’의 주인공 던처럼 짜릿한 승리(?)를 거두길 기대해 본다.

yhh1209@

사설

한국 반도체 전환기적 위기, 초격차 전략 지원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규제가 15일부터 시작됐다.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제조용 반도체 공급을 끊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력 제재다. 화웨이는 세계 스마트폰의 20%, 통신장비 시장의 35%를 차지한다. 국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다. 연간 10조 원 이상의 거대 수요처를 잃을 위기다.

1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인 영국 ARM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인수합병(M&A) 금액이 400억 달러로 반도체 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ARM은 세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칩 설계시장의 90%를 장악한 기업이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장치(GPU)의 글로벌 선두다. 세계 반도체 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의 싹을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 반도체가 미래의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기술패권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화웨이의 대체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내 업체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규모는 삼성전자 연간 7조 원, SK하이닉스 3조 원 정도다. 수출 중단에 따른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화웨이의 공백으로 중국의 2위 그룹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이 부상하면서 이들의 구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이 이들 기업까지 제재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세계 스마트폰과 5G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삼성과 LG전자 등이 화웨이의 점유율 일부를 가져오는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이 가장 큰 변수다. ARM을 인수한 엔비디아가 모바일AP뿐 아니라, AI 및 자율주행차 등의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공룡으로 떠오를 게 불 보듯 뻔하다.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미래 주력사업으로 키우는 분야다. 치열한 경쟁과 시장 판도 변화가 예고된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중국은 반도체 기술독립을 더 가속화할 게 분명하다.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면서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환기적 위기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기동 산업이다. 아직은 글로벌 시장의 확실한 우위에 있지만, 반도체마저 제동이 걸리면 한국 경제는 더 추락한다. 생존 경쟁에서 독보적 리더십을 지킬 수 있는 초(超)격차의 유지, 기술혁신 말고 답이 없다.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초격차 드라이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 전략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돕지는 못할망정, 기업이 앞을 향해 뛰어가는 데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무, 특! 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가 팔 경우 무조건 그 집에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1가구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 9억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과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16 대법원 결정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국세의 세제 혜택 대부분이 면적 요건과 가액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 요건 배제는 특이하게도 면적 요건과 가액 요건을 요구하

지 않는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했거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형편이라서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양도하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큰 혜택이 안타깝게도 12·16 대법원 결정으로 폐지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부터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아파트에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그나마 있던 거주 요건도 의미가 없게 됐다.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국내유일 전 용량 에너지 소비효율 보유
1등급 건조기가 드리는 특별한 혜택

* 20년 6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의류건조기 품목 신고 기준, 일부 모델 제외

삼성 그랑데^{AI} 1등급 효율가전 스페셜 앵콜

- 이벤트1 세탁기/건조기 그랑데^{AI}1등급 패키지 구매하시면 30만 상당 혜택!
- 이벤트2 그랑데^{AI} 최대용량1등급 패키지 + 에어드레서 동시구매 시 에어드레서 무상증정효과!

행사기간 2020년 9월 8일 ~ 2020년 9월 21일

삼성 그랑데^{AI}

* 이벤트1 행사 대상 제품(삼성그랑데^{AI})은 24kg 세탁기+16kg 건조기 올인원 컨트롤 모델에 한함, 일부 모델 제외
* 이벤트2 행사 대상 제품(삼성그랑데^{AI})은 24kg 세탁기+17kg 건조기 올인원 컨트롤 모델에 한함, 일부 모델 제외
* 매장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상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행사모델 구입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매 취소 및 반품 시 해당 혜택 및 사은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에어드레서 리얼블랙(DF60T8301KG) 삼성닷컴 혜택가 기준
*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대상 적용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